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박사학위논문

외모관리행동과 외모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문화 및 개인목표 행동적 접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김 해 선

외모관리행동과 외모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문화 및 개인목표 행동적 접근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 Socio-Cultural and Goal-Oriented Behavioral Approach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김 해 선

외모관리행동과 외모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문화 및 개인목표 행동적 접근

지도교수 한 선 주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4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김 해 선

김해선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정 형 식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손 영 미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임 채 형 (인)</u>
위 원 동신대학교 교수	<u>강 은 주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한 선 주 (인)</u>

2017年 6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사회환경과 외모관리	5
제 2 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및 목표지향적태도	8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9
2.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	13
제 3 절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도	14
1. 외모관리행동 유형	14
2. 외모 만족도	18
제 4 절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	21
제 5 절 향후 외모관리지속의도 및 삶의 질	23
1. 향후 외모관리지속의도	23
2. 삶의 질	26
제 3 장 연구방법	28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계	28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29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목표지향적태도	29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	29
3.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	30
4. 외모관리 행동 및 만족도와 향후 행동의도	31
5. 외모 만족도 및 향후 행동의도와 삶의 질	31
6. 외모에 대한 공격자기의식(고/저)의 조절적 역할	32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4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2. 변수의 측정	35
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39
1. 자료의 수집	39
2. 분석방법	39
제 4 장 실증분석	40
제 1 절 기초자료 분석	40
1. 표본의 특성	40
제 2 절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45
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45
2. 전체 변수에 대한 확인적 분석	50
3. 판별타당도 검증	54
제 3 절 연구가설의 검증	59
1. 구조모형의 검증	59
2. 연구의 가설검증	60

가.(H1) 내면화 및 사회문화적인식이 목표지향적태도에 미치는 영향	60
나.(H2) 내면화 및 사회적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61
다.(H3) 목표지향적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61
라.(H4)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 만족도가 향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62
마.(H5) 외모 만족도 및 향후 행동의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62
바.(H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공적자기의식(고/저)의 조절적 역할	63
(H7)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공적자기의식(고/저)의 조절적 역할구조모형의 검증	63
제 5 장 결 론 및 제언	67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67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장래 연구과제	70
참고 문헌	72
설문지	84

<표 차례>

<표 1> 사회문화적태도 관련 선행연구 정리	11
<표 2> 외모관리 유형	15
<표 3> 외모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정리	21
<표 4> 외모관리행동 관련 선행연구 정리	25
<표 5> 삶의 질의 정의	27
<표 6> 전체 변수의 조작적정의	34
<표 7> 설문 집단의 인구 통계적 특성	40
<표 8> 표본의 외모관리행동 특성	43
<표 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40
<표 10>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 및 관리행동 및 만족도, 향후 행동의도, 삶의 질, 공적자기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8
<표 11>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검증 및 제거항목	49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51
<표 13>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	52
<표 14> 공적자기의식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3
<표 15> 공적자기의식에 대한 적합도	53
<표 16>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행렬(Φ matrix)	55
<표 17> 비강압모델과 제약모델간 비교를 통한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56
<표 18> 전체 경로모형 검증	59
<표 19> 공적자기의식 고/저집단 분류의 조작적 점검	64
<표 20> 공적자기의식의 조절적 역할 검증	64
<표 21> 연구가설 검증결과의 종합	66

<그림 차례>

<그림 1>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8
<그림 2> 면접을 위한 외모관리행동	7
<그림 3> 연구모형	28
<그림 4>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한 강압모형과 비강압모형의 검증	56
<그림 5> 연구모형 분석결과	63

ABSTRACT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 Socio-Cultural and Goal-Oriented Behavioral Approach.

Kim, hae-sun
Advisor : Prof. Han, sun-ju, Ph.D.
Department of Desig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hysical appearance has becom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riteria of evaluating people. Influenced by diverse mass-media, those who set their physical appearance goal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norms of the time not only work on their appearance in their daily lives but also show excessiv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o reach the goal, including plastic surgery to change their body, lipo suction, and extreme diets that can cause eating disorders. Beauty management behavior as a total concept, not as a specified one e.g., face, hair, skin, nails, cosmetics, etc, can improve a person's image and give a pleasant impression to others, leading to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which in turn are expected to improve quality of life.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is three-fold: 1)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2)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future behavior intentions and quality of life;

and 3) to examine a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elf-consciousness (high/low groups) on the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 and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Men and women in their 20s, 30s, 40s and 50s residing in Gwangju and Dajeon areas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hrough email, fax, or visit for approximately 4 weeks. A total of 375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using SPSS 10.1. First, to establish reliability and valid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reliability was assessed using Cronbach's alpha. Seco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LISREL 8.30. Third, LISREL 8.30, a chi-squared test was carried out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nalization of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appearance negatively affected obligatory goal-oriented attitude bu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voluntary goal-oriented attitude. Social cognition of appearance also negatively affected obligatory goal-oriented attitude bu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voluntary goal-oriented attitude.

Second, internalization significantly affecte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so did social cognition.

Third, of goal-oriented attitude variables, obligatory goal-oriented attitud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hereas voluntary goal-oriented attitude did.

Fourth,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showed positive effects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also on future behavior intentions, namely, intentions of continuous appearance management and expansion of in-depth management. Appearanc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on

intention of continuous appearance management, but not on intention of expansion of in-depth management.

Fifth, appearance satisfaction revealed a significant effect on quality of life, and also on intentions of continuous appearance management in the future and expansion of in-depth management. The findings indicate that positive cognition of appearance management leads to appropriate appearance management, resulting in appearance satisfaction, through which satisfaction with life also increases.

Sixth, moderating effect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were found i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ognition of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bligato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volunta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However, a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elf-consciousness was not found in a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e current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al factors and yielding in-depth results about internalization. Future studies need to incorporate diverse variables regarding the intention of in-depth management expansion into investigati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addition, more empirical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with diverse age groups of participants for the findings of the study to be generalized.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외모는 사회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외모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외모도 경쟁력’ 이고 “외모가 예쁜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 으로 인식되고 있어 외모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사람의 외모는 그 사회가 원하는 인상이나 키가 크거나 마른몸매를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정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 평가하게 된다. 실제로 한사람의 외모는 짧은 시간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얼굴표정이나 자세, 헤어스타일, 체형, 옷차림 등의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고, 생활습관이나 자기관리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김주미, 2016). 이 같은 외모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의복,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체형관리 등의 일상적인꾸미기 뿐만 아니라 1일 1식, PT(Personal Training), 시력교정수술, 지방흡입수술, 미용성형수술 등의 좀 더 심층화된 행동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Rudd and Lennon(2000)에 따르면 TV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날씬한 몸매나 이상적인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각 형태로 전달되어 이 같은 외모관리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외모관련 행동연구를 밝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만족도와의 관계 연구(설현진, 2010; 이정순·한경희, 2008; Chen, Fox, Hasse and Ku, 2010; Mayers and Crowther, 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관계를 보는 연구(안나영, 2007; 양유나, 2016; 이민지·정성지·안미선, 2015; 황윤정, 2007)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과 공적자기의식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매우 단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이승희·이시원, 2009; 이시원, 200). 그래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에 대한 타인의 판단으로서 평가를 의식하는 공적자기의식의 역할을 검증하여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을 밝히고자 한다.

Heinberg and Thomson(1995)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개 개인의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표준을 인식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라고 제시하였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개인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자신의 신체가 사회문화적 기준에 가까우면 긍정적 신체이미지를 갖게 되고, 반면에 사회적 기준과 차이가 있을 때는 사회적인 이상적 기준과 자신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체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행동 및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Thompson and Stice, 2001). 최근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쉽게 접하게 된다. 또한 블로그나 뷰티·패션잡지, TV, 영화 등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먼저 그 시대가 원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이 되는 트렌드한 미를 인식한다. 그런 다음 그 기준과 자신을 비교해보는 것을 내면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이 일반적인 사람도 보이지 않게 강요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외모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외모관리 행동을 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Dweck(1986)은 사회문화적 태도는 목표지향성과 관계가 높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와 타인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지향성이 강한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로 구분하였다.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인 반면,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는 자신을 비교 평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성향으로 보고하였다(Skaalvik, 1997).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는 자신의 외모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자신의 개성이나 타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자발적 목표지향은 외모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Ames(1992) 또한 의무적 목표지향성태도는 타인을 의식한 성과목표지향으로 개인의 목표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등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강요된 목표의식을 말하며 외모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개인 자신이 느끼는 외모에 대한 만족이나 신체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가치관과도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외모를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시하며 비교, 평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체중조절이나 운동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Fredrikson and Roberts, 1998; Mckinely and Hyde, 1996).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자신의 외모가 향

상되어 만족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자신의 가치는 전반으로 상승된다는 동기가 부여가 된다. 즉 외모에 대한 만족은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 외모를 더 나아지게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여 더 나은 외모를 위해 기존의 관리행동보다 한층 더 깊이 있고 중독성 있는 외모관리행동으로 어이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외모관리 행동을 이끄는 기저에는 하나의 사회심리적 현상으로써 이 같은 공적자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외모, 행동, 말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어지는 자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홍금희, 2010). 즉 공적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주위에 맞추어 행동하는 특징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 싶은 욕구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Thomton and Maurice(1997)에 따르면 공적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 높은 사람은 현재의 자기 외모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대해 매우 높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Fenigstein et al., 1975).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현 시대가 원하는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을 인식하면 타인과의 비교를 유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가가 중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을 사회문화와 개인의 목표적 태도 측면에서 인지->태도->행동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공적자기의식의 조절적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후속하여 외모만족도가 향후 행위의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을 통해 외모관행동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을 이끄는 사회문화적 및 개인 행동적 접근측면에서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어 개인행동 및 관련 산업에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하여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도가 향후 행동의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전반적 연구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구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사회문화적태도, 목표지향적태도, 외모관리행동, 외모만족도, 향후 외모관리행동, 공적자기의식, 삶의 질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본 연구의 사회문화적태도, 목표지향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다양한 관련 선행변수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적자기의식의 조절변수로서 외모관리행동 유형에 따른 관계특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 간의 검증하고 가설을 설정 하였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설정한 가설 검증을 위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표본의 특성, 변수들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확인적 분석,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제5장은 연구결론과 제언부분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로서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환경과 외모관리

Freud(1993)의 본능이론을 개발하였는데 본능은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Freud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볼 때 본능이론과 개성이론, 욕구이론을 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개인의 겉모습인 외모 대한 이미지를 보완하려는 외모관리 노력은 개성이론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변화와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해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인격이나 내면의 성실함 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인상이나 이미지 타인과 차별화가 중시하게 되어 개성이론이 더 설득력 있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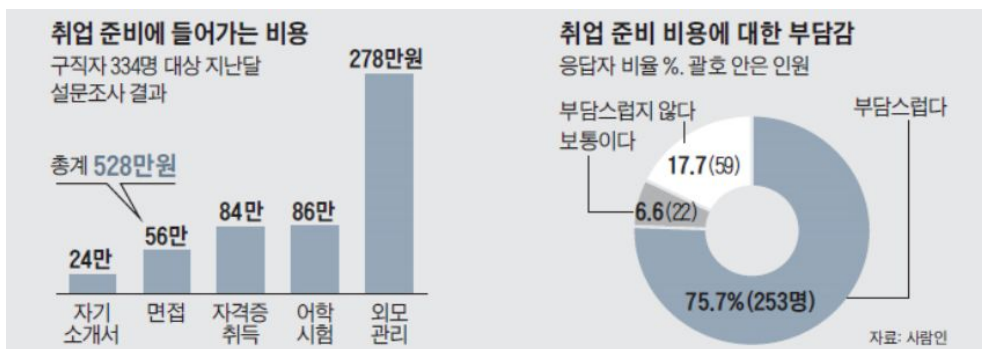
개인을 지각하는 겉모습은 외모에 대한 인상으로서 대인 접촉 시에 중요한 이미지 전달 요소이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 보이거나 좋은 특성, 성격이 좋아 보이는 후광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회성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다. 외모는 키가 크거나 날씬한 체형, 남성경우 근육질 몸매는 성격안정성, 사회생활의 대인관계성면에서 모두 높게 평가된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류지원, 2000). 패션을 이끄는 힘은 전반적인 사회적현상 임을 받아들인다면 유행도 몇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하용득, 1999). 현대의 정보화는 일상생활에서 이상적인 신체를 가진 광고 모델이나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며 한번 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현대사회의 대중문화와 세계가 공유하는 정보 홍수에서 공유하는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외모인식의 영향은 개인이 외모에 대해 관여도가 높게 하고 어느 정도의 불만족 인식을 상시로 갖게하는 경향이 있다. 하루 중에 자신의 겉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보다 매스컴, 인터넷, SNS를 통해 이국적인 모델이나 TV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을 시각적으로 접할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요즘 현대인의 일상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과도한 성형수술이나 지방흡입수술, 약품 사용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피해사례는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외모지상주의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단적인 개인의 신체변화는 정신이나 육체 물론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Kefgen and

Touchie-Specht(1976)는 여성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흥미, 신념과 관계없이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적외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식이요법, 운동 및 의상, 메이크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했다. Bloch and Richins(1992)는 외모관리를 화장품, 헤어염색 및 패션 등의 외모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은 개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모관리의 중요성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334명을 대상으로 한 '구직자 취업 준비 비용' 조사 결과, 구직자들은 1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평균 528만원을 쓰고 이 중 외모 관리만 278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이 어학 관련(86만원), 자격증 취득(84만원) 순으로 나타나 취업 준비를 위해 돈을 쓸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외모인 것으로 나타났다(chosun.com, 2016). 조사 대상자들의 구직 과정을 1년으로 잡을 때 자격증 취득은 평균 6.8개월이 걸렸으며, 어학은 8.3개월 동안 대비했고, 자기소개서 작성은 5개월, 면접은 6.1개월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모 관리는 11.5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가 외모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로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력서에 사진이나 연령 표시 등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개인의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뽑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높다. 외모 관리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앞서 언급한 '자기관리가 철저한 구직자로 각인되고 싶어서'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이 유리해질 것 같다'는 답변은 28.3%이었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줄 것 같다'는 답변은 24.3%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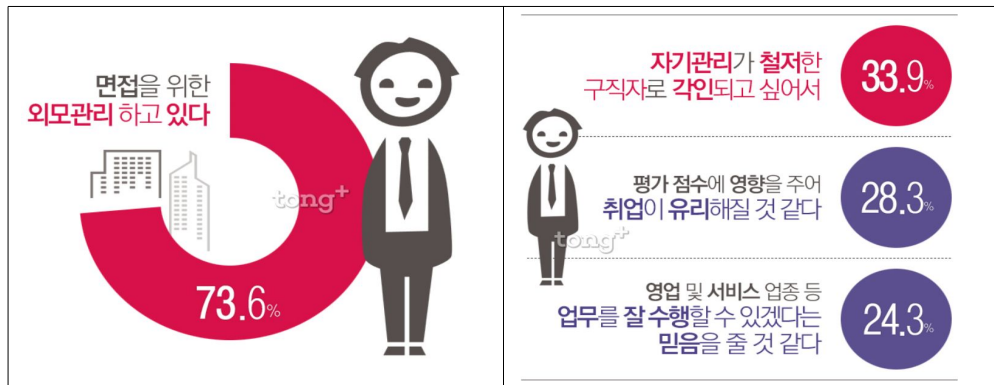
<그림 1>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자료 : chosun.com, 사람인, “취준생, 어학보다 외모에 3배 더 투자… 1년간 528만원 쓴다”, 2016.6.24.

현대인들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모관리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건강한 신체와 날씬한 몸매 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개인의 외모를 관리하는 일은 일종의 프로젝트 수행이 되기도 한다. 외모관리는 건강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 노력을 투자해서 끊임없이 재구성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자아를 표현하고 개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2> 면접을 위한 외모관리



자료 : chosun.com, “구직자 73.6% '면접 위해 외모 관리', 가장 많이 하는 외모 관리는?”, 2016.10.26

제2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및 목표지향적태도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외모의 걸모습인 신체를 사회의 이상적인 기준을 인식하고 그러한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내면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Heinberget al.(1995)에 의해 제안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Sociocultural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지각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인지하는 인식(awareness) 차원과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수용하고 사용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Heinbergand Thompson and Stomer, 1996). 즉, 각 사회는 그 시대에 맞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Rudd and Lennon,(2001)은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시대를 반영하며 미(美)란 문화적·사회적 구성요소라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상적인 외모는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기준이 변화한다고 했다. 그 시대에 가장 트렌드한 정형화된 미를 자신과 비교하여 날씬할수록, 더 좋은 외모일수록 사회에서 경제력이나 직업, 대인관계 등 성공적으로 보이는 후광효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외모관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태도 현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TV,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여성의 마른 신체를 이상화하거나 남성의 근육질 몸매를 강요하는 사회적인 압력 등으로 행사된다(Cash and henry, 1995; Stice et al, 1996; Cusumano and thompson, 1997). 예를 들면 Schutz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외모와 현실적으로 실제 자신의 모습과의 차이에서오는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게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불만족으로 인해 폭식이나 과도한 절식과 같은 섭식장애, 과도한 미용성형을 추구 하며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와 비교한 결과로 불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인과적 관계의 타당성을 설명 하고 있다(김완석·유연재·권지현, 200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모관련 사회문화적태도 개념정의 및 SATAQ 척도 개념(이상선·오경자, 2003; Cusume and Thompson, 1997; Heinber, 1995; Thomps and Stormer, 1995; Thompson, 2004)을 도입하여 이들 관계를 규명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 의복관련 행동들 간의 관계를 규명(송경자, 2009; 이미숙, 2008)하였다. 또한 여성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김윤·이종남, 2009; 홍금희, 2007)을 연구한바 있고,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모관심도, 삶의 질,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김선경·홍성희, 2013; 전현진·정명선, 2008; 최수경·정수진, 2014)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렇듯 많은 연구에서 미디어의 영향에 따른 사회적심리적 영향 변인들과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요소에 대하여 여러 대상인 여성·남성 및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민지, 정성이, 안미선(2015)은 외모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할수록 화장, 피부관리, 체중관리를 많이 하였고 타인으로부터 콤플렉스 점수가 높았으며 얼굴만족, 피부만족도의 점수는 낮았다. 또한 내면화가 높을수록 외모관심, 헤어관리 및 체중관리의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이 공통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분석되었다. 고애란과 이수경(2004)은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고 사회가 수용하는 미적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관리행동에 능동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피부관리, 메이크업, 다이어트, 패션, 악세서리 착용 등 외모관리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홍금희(2006)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은 집단이 내면화와 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식이요법(다이어트), 기능성 화장품사용, 최신 의복구입, 성형수술 등 적극적인 외모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eed(1998)는 일반적인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외모 기준을 받아들일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아 위험한 체중관리행동을 실시한다고 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신체표준이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신체불일치는 자신의 얼굴만족이나 신체만족도에 부정을 미치며 과도한 미용성형을 하거나 마른 몸을 선호하여 지나친 다이어트, 섭식장애, 이노제를 복용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미실(2012)은 성형태도, 신체편향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의복행동 간의 관계 조사에서 의복의 연예인 모방행동에 가장 중요하게 미친 변수는 성형에 대한 욕

구이고 그 다음이 사회문화적 태도라 하였다. 김완석과 유연재과 권지현(2009)은 여고생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성의 연령이 증가하고 사회생활이 많아지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 한다고 하였다. 이승희와 이시원(2009)은 성별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수현(2013)은 여성들의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형성에는 모바일, 내면화, 광고, 사회적 인식의 요소로 분류하였다. 본인의 외모와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성은 외모 불만족인 경우에 모바일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았고, 미용성형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하여 모바일, 내면화, 광고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게 나왔다. 또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본인의 외모만족, 미용성형 수술경험 여부, 미용 성형 시술 경험 여부와의 관련성은 모바일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수용태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태도에 의한 외모인식과 자신의 몸을 타인과 비교하는 내면화는 개인이 지각하는 신체 또는 얼굴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져 자신을 인식하는 가치관이나 신념과도 관련성을 높여 주므로 외모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이정순·한경희, 2008).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인식하고 외모에 대해 내부화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얼굴만족과 신체만족의 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외모관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더욱 심층화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사회문화적태도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내용
임보형(2010)	사회문화적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이미지,정성이,안미선(2015)	사회문화적태도 외모관리, 외모관리행동, 외모복플렉스, 얼굴만족, 신체만족
고애란,이수경(2001)	외모지향추구행동
홍금희(2006)	사회문화적태도, 자아존중감,신체비만도 신체이미지
Reed(1998)	미디어영향, 신체이미지, 성적태도
정미실(2010)	사회문화적태도, 성형태도, 신체편향성, 의복행위
김완석, 유연재,권지현(2009)	사회문화적태도, 외모지향, 신체가치 외모지향,외모관리행동
이승희,이시원(2009)	사회문화적태도, 공적자기의식, 신체이미지
김수현(2013)	사회문화적태도, 미용성형의도
이정순,한경희 (2008)	사회문화적태도, 신체이미지 및 만족도

2.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

목표지향이란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로 특정행동의 의도에 따라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발현되는 성취동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Ames, 1992; Dweck and Elliot, 1983). 한 개인의 전반적 동기부여수준이 아닌 한 개인의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 및 의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한은숙, 2011) 개인의 능력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에 따라 개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서, 인지행동적 반응을 보인다고 했으며 따라(Dweck and Leggett, 1998; 강상민, 2002에서 재인용), Ames and Archer(1988)는 목표지향성을 외모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태도와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태도로 구분하였다.

첫째, 외모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성은 내적 동기로서 문제해결과 같은 활동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의 능력 개발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기지향성 성향으로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비교,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개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외적인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다. 개인이 이상적인 외모를 정해 놓고 자신의 능력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자신이 타인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Skaalvil, 1997). Graham and Golan(1991)은 개인이 타인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감추려는 목표가 있다. 즉,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충족하지 못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에 가깝도록 사회적 압력을 느껴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과도한 다이어트나, 강도가 높은 성형수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은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외모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외모에 대한 시대에 맞는 트렌드한 미의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발적 목표지향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적인 외모에 만족할 것이다.

천혜숙(2016)의 헤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헤어미용 종사자의 성취목표지향은 조직 차원에서 유의한 영향으로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승인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므로 조직 차원의 섬세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은(2015)은 미용 산업종사자의 업무수행과 목표지향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에서는 조직원에 대한 업무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평가 방식은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동반될 수 있다고 했고, 실무능력의 향상은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Ames(1992)는 의무적 목표지향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강요된 목표의식을 말하며 외모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사람들은 스스로가 설정한 기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받는 심리적 고통은 인내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의식하는 목표지향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높은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더욱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무적 목표지향태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강요된 목표로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Ames, 1992). 사회문화적 태도에 근거를 두고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도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공적자기의식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절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도

1. 외모관리행동 유형

현대에 이르러 생활수준의 향상,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노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양적·질적인 많은 정보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관심을 여성, 남성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미에 대한 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은 그 시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므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고 얼굴과, 피부가 아름다움을 구성시키는 주요요소가 되고 있다. 외모에 대한 미의식은 급속한 정보유통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의 개념은 고정되지 않고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관습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하므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형태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김민제, 2011).

또한 사람들은 외모가 좋아보는 사람을 보면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 보다 경제적 능력, 좋은 직업, 성격, 대인관계도 좋아 보이는 후광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를 우선 중요시 여기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Lennon, S. J. and Rudd, N. A., 1994).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단점이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가꾸기 위해 시간·노력·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정지영 외, 2006). 헤어스타일링, 뷰티행동(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 섭식행동, 다이어트행동, 미용성형행동, 운동행동 등의 외모향상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외모향상을 통해 타인에 비추어진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 이미지를 내면화시키려고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오별, 2012).

외모관리행동 유형에서의 뷰티행동, 운동행동, 섭식·다이어트행동, 성형행동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표 2>를 작성하였다.

<표 2> 외모관리행동 유형

외모관리 행동 유형	행 동			
뷰티행동				
운동행동				
섭식· 다이어트행동				
성형행동				

자료 : <http://blog.enter6.co.kr/1562>, <https://www.google.co.kr/search?>, <https://www.google.co.kr/search?q>, <http://m.blog.daum.net/oprgn1108/19>, <http://iacea.com.ar/gnu/bbs/a-news-content.html?board>, <http://sportvitamin.tistory.com/79>, <http://nbsports.tistory.com/405>, <http://archncurl.com/?p=1359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http://thercokr.tistory.com/entry>, <http://tjsal1163.tistory.com/224>, <http://medibelldj.tistory.com/entry>, <https://www.google.co.kr/search?q>, http://m.pressian.com/m_article.html?no, <http://m.blog.daum.net/koreanhealth/164>, http://www.sy-ps.com/bbs/content.php?co_id=clinic61

뷰티행동을 살펴보면 아름다움을 향한 끝없는 욕망은 더 예뻐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으로 외모중시, 웰빙트렌드, 고령화, 뷰티에 관한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뷰티행동은 특정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사회가 원하는 외모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메이크업, 네일, 헤어, 패션, 악세서리 등 신체 장식식을 통해 외모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뷰티행동을 하게 된다. 여기서 뷰티의 사전적 의미는 ‘얼굴이나 머리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방기정, 2012). 화장, 조발, 복식 등으로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포함하여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미용성형 즉 전신미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김유성, 2011). 뷰티관리행동

을 통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대인관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시대 상황 맞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삶의 질 개선으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미에 대한 욕망의 증가로 뷰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었고 눈부신 발전과 함께 헤어, 메이크업, 피부 관리, 네일아트, 화장품 아로마테라피 등 범위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토털패션 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젊고 아름다운 추구는 뷰티관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능성 화장품인 주름개선을 위한 안티에이징(anti-aging, 항노화)과 비수술적(NonSurgical)요법인 보툴리눔 독신(보톡스), 필러, 레이저, 리프팅요법 등은 생얼, 꿀피부와 같은 신조어까지 유행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메이크업도 네츄럴(natural)한 피부표현을 선호 하는 추세로 색조화장품보다 기초화장품에 더 신경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메이크업 행동은 가장 쉽게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직접적인 표현 수단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사회생활, 심리적 만족감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직무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이미정 · 이성내, 2012). 또한, 자신의 결점을 커버 하고 자기 자신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한층더 자신의 매력을 높이는 행위로 정의된다(박선희, 2011).

Graham 과 Jouhar(1981)에 따르면 일반적인 메이크업에 보다 전문적으로 메이크업을 한 얼굴이 더 매력적이고 더 여성적이며, 더 섹시하게 보인다고 했다. 즉, 화장행동은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벗어나 시간이나 장소, 목적에 따라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토털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내적인 정신과 외적인 감각을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어 내어 사회생활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네일(Nail)행동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강한 자기표현과 스트레스 해소 목적의 뷰티행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출이 가장 많은 손 관리는 사회적 활동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과의 친근감을 표현할 때나 상대방과 대화할 때 등 자신의 이미지를 더 나아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보건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 네일산업의 년 간 매출규모가 4,830억 원으로, 이는 전체 미용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양적·질적 확대와 일반여성의 미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한국보건진흥원, 2009). 네일은 산업의 성장과 보급력의 확산에 따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일반대중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태임을 알 수 있다. 강소영(2012)의 20-4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들의 기본욕구를 파악하고 매슬로우(Maslow) 욕구 따르면 네일관리행동 4개의 요인인 ‘자기변화’, ‘자기표현’, ‘집단추종’, ‘타인 의식’ 중 ‘자기변화’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의 의미는 네일관리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의 도구로 자기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일관리는 자기표현 통해 자신의 개성이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 하고 자아를 표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홍희숙·류성민,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내 가치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자신감의 향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헤어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관리이미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매체의 발달로 인해 외모의 변화 요인으로 자신을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수단이며 자기만의 관리행동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헤어관리행동은 꾸준히 발전하고 사람의 인상을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연출을 하게 된다. 헤어관리에 있어서 헤어관리행동은 염색, 펌, 드라이, 코팅, 영양, 두피 또는 모발 마사지 등의 여러 가지 행동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모발의 건강관리와 미적 추구의 목적을 위해 유지 관리하는 행동을 말한다(윤소영, 2007; 이주영, 2012). 헤어스타일 연출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행위를 헤어행동이라 정의 하였다(김미리, 2012).

Workman & Johnson(1991)은 머리모양은 메이크업과 의복이 통합하여 개인의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헤어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뷰티행동을 통해 자아존중감, 대인지향의 목적을 가진 의미있는 행동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태미, 2011). 이는 얼굴이나 머리를 다듬고, 차림새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외모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뷰티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미용서비스는 인간의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끊임없는 욕구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또한 메디컬산업과 윈윈(WIN-WIN)하여 화려함보다는 건강한 젊음을 추구하는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여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외모 만족도

외모만족도란 신체 각 부위에 또는 전체의 포괄적인 만족도로서 신체 각 부분의 생긴 모양새나 역할에 대한 겉모습의 만족감 정도를 말한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애란 외, 1996; Cash, 1990; Secord and Jourard, 1953).

외모는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모를 통해 첫인상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모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라고 할 수 있다(김경아, 2003; 김은경, 2005)

여기서 외모란 얼굴, 몸매,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옷차림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인 모습을 말한다. 그에 따른 아름다움의 기준은 그 시대의 사회, 예술, 경제, 문화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나 신체를 보는 방법을 통해 각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기준을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생각은 개인게 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은 외모의 기준과 자신의 몸을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가 덜 매력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되어 신체 불만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Lorenzen and Grieve and Thomal, 2004). 비교 기준과 지각된 자기와의 차이가 커질수록 불만족한 감정은 더 크게 유발되지만(Oliver, 1980) 이러한 외모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가능하다.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신체상에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외모를 저평가하여 불만족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외모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변하면 자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외모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백혜영·이선목, 2003).

Hassion and Trope(2000)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즉시 알아 볼 수 있는 얼굴은 매우 중요한 이미지 구성요소가 되며, 이런 얼굴 이미지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하였다. 얼굴은 개인의 감정이나 특성을 나타내며 해당 개인의 매력측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황윤정과 유태순(2008)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의사전달을 한다는 점을 주시하므로 얼굴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아름답게 관리하고자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얼굴만족도에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Graham and Jouha(1981)는 여성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외모가 더 매력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고, 최수경(2007)은 뷰티행동을 많이 할수록 외향적이고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백정숙과 류현혜(2004)의 연구에서는 메이크업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집단의 얼굴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 메이크업 추구집단과 메이크업 지향집단이 메이크업 무관심집단보다 얼굴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피부색, 피부결, 눈, 코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민지와 정성지와 안미선(2015)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얼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 중 내면화는 얼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외모에 대한 인식은 얼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화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얼굴만족도가 높고, 외모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얼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체만족도(body cathexis)는 ‘신체 여러 부분의 생김새와 신체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하며, 신체이미지(body image)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심경옥, 2006). 신미영(1997)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상적 신체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다이어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 Mclean(1978)은 신체만족도를 측정할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상적인 신체의 표준형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신체 각 부위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김윤과 이종남(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 친구와 매체 등 사회문화적 압력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4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수경과 조현성(2014)이 연구에서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사회의 이상적인 기준은 현실적으로 성취가 어려우므로 대개가 자신의 모습에 불만족이 유발되기 쉽다. Morrison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상과 실제 이상적인 아름다운 신체와의 차이로 인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커져, 거식증이나 폭식을 하는 섭식장애나 미용성형 및 체중감소를 위한 과한 운동을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다이어트 등의 외모관리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신의 외모만족도인 얼굴만족과 신체만족은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외모관리행동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부화가 높을수록 외모만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런 사

회적문화적 태도는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외모에 대한 자신의 신체 만족은 주관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외모 만족은 신체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삶에 중요한 기능을 짐작할 수 있다(박은아, 2003; cash, 1990). 따라서 얼굴만족과 신체만족감을 통해 향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모관리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고 더욱 심층화된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외모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	내용
Graham A. and Jouha J.(1981) 최수경(2007)	메이크업 행동
백정숙, 류현혜(2004)	라이프스타일, 메이크업 표현, 사용정도
이민지, 정성이, 안미선 (2015)	사회문화적태도, 외모관리, 외모관리행동, 외모복플렉스, 얼굴만족, 신체만족
신미영(1997)	다이어트, 섭식장애
김해정(2004)	자기애적 성격, 신체만족
김윤, 이종남(2009)	사회적 압력, 외모관리행동
이수경, 조현성(2014)	사회문화적태도,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
Morrison et al(2004)	섭식장애, 성형, 다이어트, 외모관리행동

제4절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

공적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란 사회화를 통해 개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성에 대해 타인이 평가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외부에 보여주는 나,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Fenigstein and Scheier and Buss, 1975).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개인은 타인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 하면서 타인에 대해 매우 의식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하고, ‘거부당하고 싶지 않다’ 혹은 ‘칭찬받고 싶다’ 와 같은 승인 욕구가 크게 작용해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 지를 강하게 의식한다(최자영 · 이수원과 · 장은영, 2013). 개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대상으로 타인과 비교하고 평가를 중요시 한다. 특히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타인 의견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이 특징이다

Fenigstein et al(1975)은 자기의식이론을 토대로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개인의 개념에 따라 두 개의 자기의식으로서 공적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과 사적자기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으로 구분하였다. 사적자기의식이란 자신의 개인적인 사고나 신념, 가치, 감정 등과 같은 자기 측면들, 즉 내면의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의미한 반면 공적자기의식란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려는 성향을 의미하며, 자신의 인상이미지나 자기표현, 언어나 행동방식 등 타인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자아에 주의가 집중된다(Schlenker and Weigold, 1990). 따라서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촉진시키므로 외모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얼굴이나 신체 관리에 관심이 높게 나타는 경향이 있다. Buss(1980)는 일반적으로 공적자기의식을 높이는 환경 속에 있는 개인은 스스로를 타인의 평가의 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편감이나 평가위협(evaluative apprehension)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Fenigstein et al(1975)은 내적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 결과 개인은 항상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고하고도 있다(Millekk et al., 1982)

Thomton and Maurice(1997)는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비교효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체불안이 높았으며 신체불만족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공적자기의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더 많이 감시하는 신체 감시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전정혜와 유태준(2011)은 공적자기의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미지 관리 행동은 직접·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개인은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적 기준에 도달하고자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이미지 관리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홍금희(2010)는 공적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와 이상적 외모인식이 높았으며 그 결과 신체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와 Burns(1993)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적자기의식이 많을수록 여대생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과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Scheier(1980)는 공적자기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인상에 대해 덜 민감하며, 타인을 의식하여 자기 자신의 표현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시원(2004)은 공적 자기의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외모지향, 몸무게 집착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에 관심이 높으므로 사회문화적 영향과 외모관리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도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에 대한 감시가 높았으며 그 결과 신체에 대한 변형이 이어져 성형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키, 외모, 몸무게와 같은 겉모습에 대해 공적자기의식이 낮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인상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기 감시를 한다. 또한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집단은 외모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일상적인 외모관리 뿐만 아니라 강도가 높은 외모관리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인식된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 따른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적 외모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외모관리는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도가 공적자기의식수준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제5절 향후 외모관리지속의도 및 삶의 질

1. 향후 외모관리지속의도

외모관리행동은 각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특성을 표현해나가는 과정으로, 타인에게 자신 개성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보고 느끼는 결정적인 단서로서 신체적 특성으로 얼굴모습, 체격, 의복, 화장, 안경과 같은 악세서리, 건강상태, 체취 등을 포함한다. 외모는 관리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외모관리행동이라 한다. 개인의 적절한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의 경쟁력이나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 자신의 경제적 능력 등 자신을 보여 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Stormer and Thompson(1996)에 의하면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달과 노출이 증가됨에 따라 각 개인들은 매일 자신의 신체 모습을 관찰하고, 외모와 신체에 대한 느낌을 더욱 의식하게 되며, 개인의 신체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현대사회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 지방흡입수술, 약품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마스크를 통해 보도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외모지상주의를 초래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기도 한다. 과도한 신체적 변화추구는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모관리행동 관련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신체만족, 신체이미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규명하였고(김선희, 2003; 황윤정·유태, 2010; 이은실, 2011),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관여와 외모관리 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전지현·이미숙, 2014).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모관심도, 삶의 질, 외모관리, 외모관리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조사 하였다(이경숙, 2007; 전현진·정명선, 2008; 최수경·추미선, 2014).

노지영과 고애란과 정미실(2005)의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남성 외모관리행동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옷차림에 관심있게 살피고, 트렌드를 고려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선택하며, 운동과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loch and Richins(1992)는 외모 이미지 향상을 위해 화장품, 헤어염색 및 의상등

을 이용하고 이들 제품을 개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Kefgen and Touchie-Specht(1976)는 외모에 콤플렉스를 느끼는 여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값어치에 불안감을 느껴 운동이나 의상, 식이요법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

이민정과 정성지와 안미선(2015)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와 인식이 높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외모관리행동은 체중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은실(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의복 및 화장을 통한 외모관리가 높았으며, 자신의 신체를 보다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의복 및 메이크업을 통한 외모관리, 피부관리 및 헤어연출을 통한 외모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김인숙과 김은혜(2014)는 외모관리중 몸매관리가 다양한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여성이 20대·30대이고 미혼이며 평균지출수준이 많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는 성형 및 피부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고용비용이며 또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인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희와 박길순(2011)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개인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위한 지출이므로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적극적이라고 했다. 대인관계에서 자기 관점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많을수록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외모관리행동도 더 많아짐을 알 수 있고, 자신에 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많아진다고 했다.

박혜원(2013)은 일반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서 헤어관리는 삶의 목적의식, 대인관계에서 자기수용 차원, 피부관리 및 화장은 통제 차원에서 유의했으며 의복선택은 자기수용 차원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했다. 하지만 자기표현이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옥(2012), Higgins(1987), Demo(1987)는 여성들이 외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자의식을 자극하게 되고,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여성이 심리적 안정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Ash(2003)는 외모관리가 여성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실험한 결과 여성들은 자신들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느낄 때 기분이 좋아지며,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외모가 갖는 시각적 효과는 자기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외모관리행동은 보면 일상적인 외모 가꾸기 뿐만 아니라 위험이 내포된 신체변형에 이르기까지 외모관리행동의 다양한 행동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은 향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얼굴뿐만 아니라 날씬한 신체 달성 및 유지 등을 목표로 삼고 이러한 목표달성 위해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종의 체중 관리 프로젝트가 되기도 한다. 또한, 향후 외모관리
 행동은 건강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투자해서 끊임없이 추진해
 야 할 행동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자아를 표현하고 개인의 궁극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4> 외모관리행동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내용
Bloch and Richins(1992)	미용사 행동의도
Kefgen and Touchie-Specht (1976)	식이요법, 운동, 의상, 외모관리행동
이민정, 정성지, 안미선(2015)	사회문화적태도, 얼굴만족, 신체만족, 외모관심, 외모관리행동, 외모kompl렉스
이은실(2011)	외모관리행동, 건강증진행동, 신체매력
김인숙, 김은혜(2014)	소비가치, 외모관리행동
이승희, 박길순	자기효능감, 외모만족, 심리적 안녕
박은혜(2013) 장혜선(2014)	신체이미지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 심리적 안녕

2. 삶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정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인 인식과 평가에 의한 만족의 수준이다(네이버 검색 2009)¹⁾. 즉,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며 즐거움을 찾느냐 하는 주관적 지표로서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느끼는 행복한 정도를 말한다. 삶의 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학자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는 그만큼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며 함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진기남 등, 1998)

Liu(1973)는 삶의 질이란 국가의 전반적인 건강성과 그 시민들의 번영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고, Myers(2009)는 삶의 질이 어떤 장소에서 주민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조건들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평가라고 하였다. 또한 Burckhardt(1985)는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인간의 느낌, 유쾌하고 불유쾌한 감정상태 간의 조화 등과 같은 정서나 정신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개인의 삶의 질은 물질적인 돈이 많다거나 좋은 집, 고급 자동차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현재의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소비적 태도인 ‘인생은 한번 뿐이다’를 뜻한다. 즉, You Only Live Once 앞 글자를 딴 yolo족은 노후 준비보다는 현재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나 자신을 계발하며 경험에 가치를 두고 행복을 찾는 정서적인 주관적 삶의 만족을 선호하고 있다.

외모와 삶의 질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광희와 김인숙(2013)은 라이프스타일별 분석한 결과 여성은 몸매관리, 남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Garner et al.(2012)의 연구에서 정상체중 여성이 삶의 질이 높았으며 남성인 경우는 삶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삶의 질이 여성보다 비만 정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혜경과 고선영(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 비만남성들을 면접한 결과 비만에 따른 스트레스증가와 삶의 만족도 저하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전용배와 구강본(2009)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건강추구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차보경(2013)은 여대생의 건강 관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향상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며 건전한 섭식태도를 견지하고 건강을 증진 시키는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혜윤(2010)은 연

1) 삶의 질(2009). 삶의 질. 특수 교육학 용어사전. 국립특수교육원.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기 전공학생과 비연기 전공학생의 두 그룹 다 외모 만족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외모 만족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생활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 경험이 많으며 부정적 정서 경험은 적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경험으로 느낀 만족감, 안녕감과 같은 주관적 시각측면의 삶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Diener, 1984; Kenndy, 1989; Seybolt, 2000; Smith,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외모관리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얼굴 만족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관계를 조사 하며,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외모관리행동에 경제적, 시간과 노력의 투입 그리고 과도한 성형 및 신체변형과 같은 깊이 있는 심층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외모관리행동이 삶의 만족에 긍정 또는 부정적 정서에의 영향 알아보하고자 한다.

<표 5> 삶의 질의 정의

학 자	내 용
김애련(2001)	삶의 질을 건강, 사회적 자원, 심리적 측면, 경제·환경요인, 심리적 복지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 삶의 질을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또는 주관적 복지감인 단일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차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상태 또는 주관적 복지상태를 의미한다.
박나래(2007)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정서적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가
손신영(2006)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과거 · 현재 삶에 대한 평가 및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최정재(1986)척도 사용
최홍권(2010)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
최윤진(2009)	노인 개개인의 삶의 구성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정의,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이금자(2008)	가족생활만족, 정부정책만족, 여가생활만족, 생활환경만족, 주거생활만족 등 각 영역별 만족도로 측정(정영숙, (1999) 척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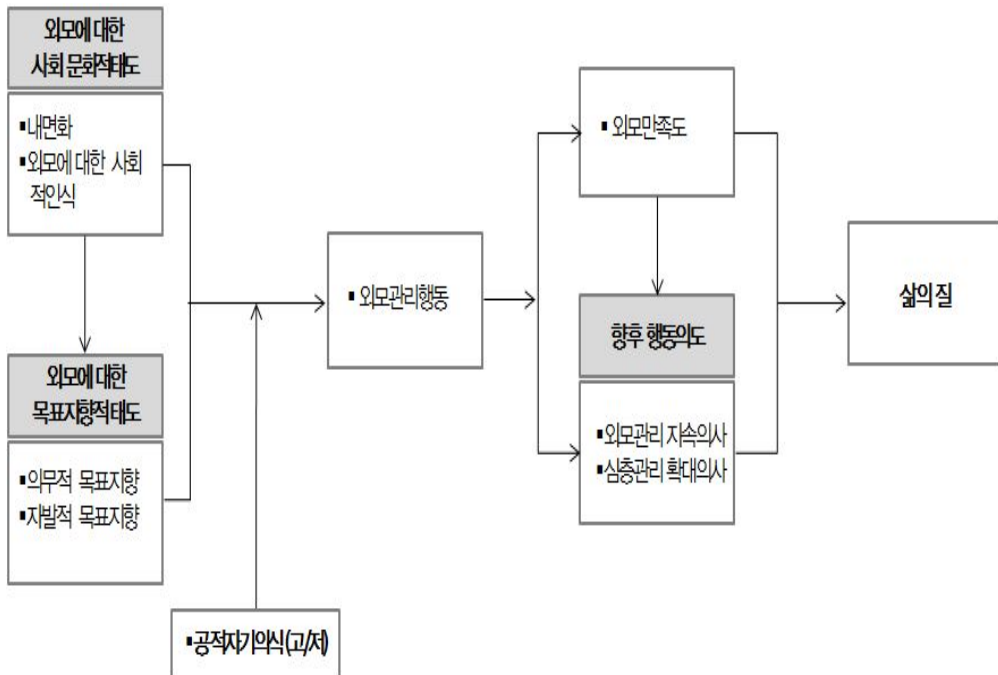
자료 : 정혜윤(2010)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의 설계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가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선행 사회문화적태도와 목표지향적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후속하여 외모만족도와 향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및 목표지향적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자기의식(고/저집단)의 조절적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그림 3> 연구모형



제2절 가설의 설정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목표지향적태도

Skaalvik(1997)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이 타인으로 부터 부정적인 피드백(feedback)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Graham and Golan(1991)는 목표지향적태도의 하나로서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성은 개인이 타인을 의식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되는 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낮은 능력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감추려는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내면화와 사회적인식은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은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은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

Reed(1998)는 일반적인 여성들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외모 기준을 받아들일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과도한 체중관리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미의 기준과 비교해서 이상적인 정형화된 외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불일치가 일어나 외모만족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여 과도한 체중관리와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미용성형을

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외모로 동경하게 된다. 김완석과 유연재, 권지현(2009)은 개인이 사회문화적 트렌드에 편승하여 일반사회의 이상적인 외모를 준거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외모와 비교한 결과 발생하다는 현상이 내면화이다. 이 같이 내면화 현상은 사회문화적 태도 현상의 하나로서 작용하는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윤과 황선진(2008)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 수단을 통해서 전달된 이상적인 신체상이 소비자 자신의 외모평가 기준이 됨으로써,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이민지 등, 2015). 따라서 사회적으로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외모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은 외모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

Harackiewicz and Elliot(1993)는 외모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성과는 자기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자존감이 높게 되고 독자적 성향을 보이며 개인의 개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의 능력 및 외모관리행동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의무적 목표에 중점을 두고 외모관리를 할 경우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외모관리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자신의 외모관리에 대해 자발적이고 능동적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외모관리행동에 여러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서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은 외모관리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외모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은 외모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외모관리 행동 및 만족도와 향후 행동의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한다.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러가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데 화장, 운동, 피부관리, 음식조절 등의 기초적인 방법에서 좀 더 심층적인 보톡스, 지방흡입, 성형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채용하고 있다. 그 결과 외모관리에 대한 행동은 외모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은 지속적인 외모관리의사 및 심층관리확대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 외모관리행동은 외모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 외모관리행동은 외모관리 지속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 외모관리행동은 외모관리 심층확대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리 지속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5 :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리 심층확대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외모 만족도 및 향후 행동의도와 삶의 질

Aifonso et al.(1996)은 외모에 대한 만족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외모만족도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외모관리행동은 현재의 외모를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미래지향행동으로 일상꾸미기인 메이크업, 운동, 헤어뿐만 아니라 과도한 미용성형수술, 신체변형 등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외모관리행동과 외모만족을 통해서 향후 외모관리 지속의사, 심층관리확대의사는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생활 전반에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1 : 외모만족도는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 향후 외모관리 지속의사는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 : 향후 외모관리 심층확대의사는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고/저)의 조절적 역할

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공적자기의식(고/저)의 조절적 역할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높으므로 사회문화적 영향과 외모관리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원, 2003). 또한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초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타인으로부터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Turner et al., 1981).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이 같은 사회적 가치에 자신의 외모를 일치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피부관리, 운동, 미용성형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하고 있다(Rudd and Lennon, 2000). 이같이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은 사회문화적태도 및 목표지향적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공적자기의식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일 것인데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개인은 이들 사회적 및 목표지향적 태도와 상호작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외모관리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1 :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고/저)은 내면화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6-2 :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고/저)은 사회적인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나.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공적자기의식(고/저)의 조절적 역할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인식된 외모의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 따

른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적 외모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외모관리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가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 보다 더 높은 외모관리행동을 추구할 것이다. 즉 의무적 vs 자발적 목표지향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1 :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고/저)은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와 외모리 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7-2 :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고/저)은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와 외모관 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작적 정의는 <표 6>과 같다. 대부분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전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6>과 같다.

<표 6> 전체 변수의 조작적정의

구성개념		조작적 정의
외모에 대한	내면화	이상적인 표준에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대중매체를 통한 외모의 특성을 이상적인 미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	외모관리 목표가 타인 및 사회적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목표에 집중되어 있는 태도
목표지향적 태도	자발적 목표지향	외모관리 목표가 건강 및 신체관리에 목표에 집중되어 있는 태도
외모관리행동		자신의 현재 외모를 메이크업 및 운동, 헤어, 성형 수술을 통해 더 나아지려고 관리하는 행동
외모 만족도		자신의 신체 및 생김새 등의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 정도
공적자기의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평가되어지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의식
향후 행동의도	외모관리 지속의사	외모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
	심층관리 확대의사	향후 현재의 외모관리행동을 다른 관리행동으로 확대하려는 의사
삶의 질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

2. 변수의 측정

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 · 문화적 태도는 Heinberg et al.(1995)이 개발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ATAQ)의 내면화척도(Internalization: SATAQ-I)와 인식척도(Awareness: SATAQ-A) 사용하였고 내면화척도 3개 문항과 인식척도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1) 내면화

내면화는 최영미(2000), Heinberg et al.(1995)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나는 TV나 영화에 나오는 스타들과 내 몸을 비교해 보는 경향이 있는 정도”,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지는 정도”, “나는 흔히 여성잡지를 보고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 한 정도”, “나는 나의 몸매/외모가 TV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 등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전정혜과 유태순(2011)은 다양한 대중매체의 정보로 인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이상적 가치와 외모의 중요성으로 인식(awareness)하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internaliz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도”,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이 날씬할수록 더 보기 좋다고 믿는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씬할수록 옷맵시가 난다’ 라고 생각한 정도”, “나는 날씬한 모델이 입은 옷이 더 나아 보인다고 믿는 정도”, “오늘날 사회에서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나.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

(1)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

최영미(2013)의 연구에서 미래지향적목표에 대한 척도는 외국의 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보완 하여 문항을 만들고 판별 타당화하여 최종문항을 구성하였다. 의무적 목표지향의 척도는 3개 문항으로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사회적 신분상승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정도”,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문제해결(취업 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정도”,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정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2)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는 Heinberg et al.(1995)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정도”,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나의 만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정도”의 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다.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외모관리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행동으로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나는 선크림, 미백, 주름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나는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을 이용한다”, “나는 체중감소를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나는 체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한다”, “나는 날씬하게 남에게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지방흡입을 이용한다” 등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라.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조선명(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 “나는 나의 피부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의 얼굴형(모양/크기)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의 몸무게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의 체형(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의 눈 모양에 대해 만족

한다”의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마. 향후 외모관리 행동의도

(1) 외모관리 지속의사

Bloeme (2003)에서 행동지속성은 개인이 특정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행동지속성은 Corbin and Lindsey(1994)의 운동지속 설문지 EAQ (exercise adherence)와 Corbin et al.,(2003)의 신체활동지속성 설문지 (Physical Activity Adherence Questionnaire)를 조합하여 측정되어 ‘행동지속성’ 구성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하여 총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향후 나는 자신의 외모관리 행동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향후 나는 자신의 외모관리 행동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향후 나의 외모에 변화를 준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향후 나는 자신의 외모관리에 따른 어떤 비용도 받아들일 수 있다”, “향후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어떤 시술도 받을 수 있다” 등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 심층관리 확대의사

외모의 심층화는 Zeithaml et al.(1996)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Bloeme et al.(2003)과 김홍빈과 권봉훈(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들을 기초로하여 향후 행동의사를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하여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향후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어떤 시술도 받을 수 있는 정도”, “향후 나는 외모관리에 따른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는 정도”, “나는 색조화장(아이섀도, 립스틱, 볼터치)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정도”, “나는 얼굴 컨투어링(윤곽수정)을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정도”, “나는 비수술 미용성형(보톡스, 필러)을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는 정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바. 삶의 질

삶의 질은 민성길과 이창길과 김일광(2000)이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 간단하게 만든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WHOQOL-Bref)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는 “내 인생의 생활 조건들은 아주 좋은 정도”,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까운 정도”,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낸 정도”,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 정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사. 공적자기의식

공적자기의식은 Fenigstin et al.(1975)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나는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감한 정도”, “남들에게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보는지에 신경을 쓴 정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쓴 정도” 등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으로 20대~50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응답자와의 사전 전화약속과 일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문 조사는 조사원의 설명과 도움을 제공해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직접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약 4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8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에 적합하지 않는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37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는 SPSS 1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의 선행변수로서 사회문화적태도와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관리만족도, 향후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지속의도 및 심층확대의사, 삶의 질에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2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항목들은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의 선행요인과 삶의 질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LISREL) 분석을 하였다. 공적자기의식(고/저)의 조절적 역할을 밝히기 위해서 구조방정적 모형 $\Delta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표본의 특성

가.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는 성별은 남자가 134명(35.7%)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241명(64.3%)의 분포를 나타냈다. 연령은 20대는 98명(26.1%)였으며, 30대는 127명(33.9%), 40대는 114명(30.4%), 50대 이상은 36명(9.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 1명(0.3%), 고졸이 54명(14.4%), 대학재학은 57명(15.2%), 대졸이 214명(57.1%), 대학원 재학이 14명(3.7%), 대학원 졸업이 35명(9.3%)의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주부가 53명(14.1%), 학생이 62명(16.5%), 자영업이 57명(15.2%), 공무원은 51명(13.6%), 교육자는 19명(5.1%), 일반 사무 및 관리직은 58명(15.5%)의 분포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거지역은 광주 318명(84.8%), 대전이 46명(12.3%), 기타 지역 11명(3.0%)의 분포로 나타났다.

<표 7> 설문 집단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375명)	퍼센트(100%)
성별	남자	134	35.7
	여자	241	64.3

구 분		빈도(375명)	퍼센트(100%)
연령	20대	98	26.1
	30대	127	33.9
	40대	114	30.4
	50대 이상	36	9.6
학력	중졸	1	.3
	고졸	54	14.4
	대학 재학	57	15.2
	대졸	214	57.1
	대학원 재학	14	3.7
	대학원 졸업	35	9.3
직업	주부	53	14.1
	학생	62	16.5
	자영업	57	15.2
	공무원	51	13.6
	교육자	19	5.1
	일반 사무 및 관리직	58	15.5
	기술직 및 기능직	50	13.3
	기타	25	6.7
주거지역	광주	318	84.8
	대전	46	12.3
	기타지역	11	3.0

나. 표본의 외모관리행동 특성

표본의 외모관리행동 특성 중 1주일 평균 운동정도는 “매일한다” 라는 응답자는 22명(5.9%)으로 나타났으며, “주5일 운동한다” 응답자는 43명(11.5%), “주3일”은 74명(19.7%), “주1일”은 112명(29.9%)으로 나타났으나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24명(38.1%)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를 하는 장소로는 “집에서 주로 관리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204명(54.4%)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용샵”이 89명(23.7%), “피부샵”이 44명(11.7%), “네일샵”이 22명(5.9%), 기타가 16명(4.3%)으로 나타나 외부 영리업소를 통해 외모관리를 한다는 응답이 전체 375명 중 155명으로 41.3%로 나타나 외모관리행동이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달 평균 외모관리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만원-4만원미만이 가장 많은 98명(2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만원-6만원미만이 84명(22.4%), 10만원이상이 71명(18.9%), 8만원-9만원 미만이 60명(16.0%), 6만원-8만원 미만이 49명(13.1%), 기타가 13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이 208명(55.5%)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을 받았다는 응답도 77명으로 20.5%로 나타나 전체 375명 중 285명이 시술 또는 수술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외모관리행동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술 및 수술받은 횟수에 대한 응답은 1회가 가장 많은 104명(27.7%)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회가 75명(20.0%), 3회가 60명(16.0%), 5회이상 43명(11.5%), 기타가 5회(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술 및 수술받은 이유는 자기만족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229명(61.1%)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1명(5.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변의식 때문이라는 응답이 18명(4.9%),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시술 및 수술을 했다는 응답도 13명(3.5%), 취업을 위해서가 3명(0.8%), 기타가 4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표본의 외모관리행동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1주일 평균 운동횟수	매일	22	5.9
	주 5일	43	11.5
	주 3일	74	19.7
	주 1일	112	29.9
	하지 않음	124	33.1
과거 다이어트 성공여부	있다	163	43.5
	없다	155	41.3
	기타	57	15.2
외고관리를 하는 주요 장소	네일샵	22	5.9
	미용샵	89	23.7
	피부샵	44	11.7
	집에서	204	54.4
	기타	15	4.0
	시스템	1	.3
한달평균 외모관리 비용	2~4만원 미만	98	26.1
	4~6만원 미만	84	22.4
	6~8만원 미만	49	13.1
	8~9만원 미만	60	16.0
	10만원 이상	71	18.9
	기타	13	3.5
과거 시술 및 수술을 받은 경험	시술	208	55.5
	수술	77	20.5
	없다	88	23.5
	시스템	2	.5

구분		빈도	퍼센트
과거 시술 및 수술을 받은 횟수	1회	104	27.7
	2회	75	20.0
	3회	60	16.0
	5회 이상	43	11.5
	기타	5	1.3
	기타	1	.3
	시스템	87	23.2
과거 시술 및 수술을 받은 이유	자기 만족을 위해	229	61.1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13	3.5
	주변의식 때문에	18	4.8
	취업을 위해	3	.8
	사회생활을 위해	21	5.6
	기타	4	1.1
	시스템	87	23.2

제2절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에 앞서서 측정항목들을 선별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은 이론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있어 각 항목의 신뢰성(reliability),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개괄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측정항목에 대한 사전평가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후 측정항목과 신뢰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론변수의 다항목 척도간의 신뢰성을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구성개념들과의 측정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본 연구가 제시한 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단일 차원성과 전체적인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각각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항목들에 대한 항목-전체 상관관계(item-to-total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여 .04이상으로 나타난 항목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원들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내면화는 “나는 TV나 영화에 나오는 스타들과 내 몸을 비교해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나는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연예인의 외모를 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의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은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이 날씬할수록 더 보기 좋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씬할수록 옷맵시가 난다’ 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의 2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 비율은 73.009%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대한 분산 설명 값은 내면화가 42.961%,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30.961%로 나타났다.

<표 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구분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 나는 TV나 영화에 나오는 스타들과 내 몸을 비교해 보는 경향이 있다	.874	.187
-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806	.293
- 나는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연예인의 외모를 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	.744	.289
-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이 날씬할수록 더 보기 좋다고 믿는다	.214	.853
- 오늘날 사회에서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298	.785
고유치(Eigenvalue)	2.102	1.548
설명분산(%)	42.961	30.961
누적분산(%)	42.961	73.009

나.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 및 관리행동 및 만족도, 향후행동의도, 삶의 질, 공적자기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 및 관리행동 및 만족도, 향후행동의도, 삶의 질, 공적자기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는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문제해결(취업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사회적 신분상승에 목표를 두고 있다”,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의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는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나의 만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나 자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두고 있다”의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외모관리행동은 “나는 현재 선크림, 미백, 주름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을 이용한다”, “나는 체중감소를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의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외모만족도는 “나는 나의 피부에 대해 만족

한다”, “나는 나의 얼굴형(모양/크기)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의 몸무게에 대해 만족 한다”, “나는 나의 체형(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에 대해 만족 한다”의 4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외모관리지속의사는 “향후 나는 자신의 외모관리 행동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향후 나의 외모에 변화를 준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향후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어떤 시술도 받을 수 있다” 등의 3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심층관리확대의사는 “나는 색조화장(아이섀도, 립스틱, 볼터치)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 “나는 얼굴 컨투어링(윤곽수정)을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나는 비수술 미용성형(보톡스, 필러)을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의 3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삶의 질은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나 자신을 존중한다”,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좋은 장점이나 자질을 많이 갖고 있다”의 3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공적자기의식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 여러 번 생각한다”, “나는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민감한 편이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편이다”, “나는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하는 편이다”의 4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전체 분산의 설명력 비율은 77.957%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대한 분산설명 값은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가 8.989%,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가 9.764%, 외모관리행동이 8.240%, 외모만족도는 10.247%, 외모관리지속의사는 9.043%, 심층관리확대의사는 9.808%, 삶의 질은 9.117%, 공적자기의식은 12.749%로 나타났다.

다. 전체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각 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가 .807,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652, 의무적목표지향 태도가 .842, 자발적목표지향 태도가 .681, 외모관리행동은 .770, 외모만족도는 .815, 향후 외모관리지속의사는 .884, 심층관리확대의사는 .732, 삶의 질은 .920, 공적자기의식은 .903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용 기준인 .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Nunnally, 1978).

<표 10>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 및 관리행동 및 만족도, 향후 행동의도, 삶의 질, 공적자기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의무적 목표 지향적 태도	자발적 목표 지향적 태도	외모 관리 행동	외모 만족도	외모 관리 지속 의사	심층관 리확대 의사	삶의 질	공적자 기의식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문제해결(취업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829	-.056	.005	.019	.182	.181	.198	.071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사회적 신분상승에 목표를 두고 있다.	.805	.005	.025	.005	.223	.103	.120	.194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788	.006	.110	.008	.065	.043	.100	.284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나의 만족에 목표를 두고 있다.	-.045	.912	.128	.140	.004	-.064	.111	-.050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044	.887	.084	.105	.037	-.082	.175	.044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나 자신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두고 있다.	.048	.831	.202	.202	-.030	.016	.123	-.129
-나는 선크림, 미백, 주름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039	.073	.821	-.002	.033	.138	.154	.081
-나는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을 이용한다.	.129	.143	.819	-.014	.067	.093	.181	.084
-나는 체중감소를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047	.165	.752	.137	.127	-.055	.075	.032
-나는 나의 피부에 대해 만족 한다.	.065	.060	.034	.874	-.024	-.020	.029	.019
-나는 나의 얼굴형(모양/크기)에 대해 만족 한다.	-.102	.049	-.008	.834	.058	-.017	.052	.016
-나는 나의 몸무게에 대해 만족 한다.	.109	.155	.015	.808	-.067	-.027	.063	.073
-나는 나의 체형(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에 대해 만족 한다.	-.030	.132	.080	.650	.119	.014	.037	-.093
-향후 나는 자신의 외모관리 행동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67	.066	.073	.062	.814	.222	.170	.181
-향후 나의 외모에 변화를 준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253	-.051	.097	.065	.799	.198	.161	.273
-향후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어떤 시술도 받을 수 있다.	.157	-.003	.148	.000	.790	.257	.172	.336
-나는 색조화장(아이섀도, 립스틱, 볼터치)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	.116	-.078	.041	-.054	.163	.886	.119	.143
-나는 얼굴 컨투어링(윤곽수정)을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009	-.083	.060	-.029	.144	.867	.054	.216
-나는 비수술 미용성형(보톡스, 필러)을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02	.025	.084	.026	.221	.819	.044	.097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나 자신을 존중한다.	.188	.130	.137	.066	.088	.094	.861	.185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155	.088	.198	.109	.141	.086	.833	.147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좋은 장점이거나 자질을 많이 갖고 있다.	.104	.269	.154	.044	.221	.056	.766	.04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 여러 번 생각한다	.140	-.014	.052	-.030	.116	.110	.074	.913
-나는 나에게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민감한 편이다.	.120	-.019	.100	.064	.176	.156	.069	.856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편이다.	.142	-.081	.026	-.041	.132	.059	.074	.841
-나는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하는 편이다.	.179	-.013	.055	.017	.244	.200	.191	.715
고유치(Eigenvalue)	2.337	2.539	2.142	2.664	2.351	2.550	2.370	3.315
설명분산(%)	8.989	9.764	8.240	10.247	9.043	9.808	9.117	12.749
누적분산(%)	8.989	18.753	26.993	37.240	46.283	56.091	65.208	77.957

<표 11>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검증 및 제거항목

연구단위	측정항목		Cronbach's α	제거항목
	최초 항목 수	최종 항목 수		
내면화	5	3	.807	-나는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연예인의 외모를 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흔히 여성잡지를 보고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 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4	2	.652	-오늘날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날씬한 모델이 입은 옷이 더 나아 보인다고 믿는다
의무적목표 지향태도	3	3	.751	-
자발적목표 지향태도	3	3	.624	-
외모관리 행동	5	3	.770	-피부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을 이용한다 -나는 날씬하게 남에게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지방흡입을 이용한다
외모만족도	5	4	.815	-나는 나의 눈 모양에 대해 만족한다
향후 외모관리지속의사	4	3	.884	-나는 저칼로리 식품을 골라 먹기를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심층관리 확대의사	5	3	.732	-향후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는 정도 -향후 나는 외모관리에 따른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는 정도
삶의 질	3	3	.920	-
공적자기의식	4	4	.903	-

2. 전체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가. 전체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다 항목으로 측정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 8.3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검정을 위한 입력 자료로 상관관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연구 모형의 적합성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으로 2개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한 뒤에 구조모형을 검정하였다.

전체 연구단위들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680.13$, $df=239(p=.000)$, $GFI=.92$, $AGFI=.89$, $NFI=.94$, $NNFI=.94$, $CFI=.96$, $RMSEA=.079$ 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는 사용된 지표들이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면 이들 간의 상관이나 관련성은 높아야 하며 다른 개념들의 지표들과의 상관이 낮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본다. 또한 각 잠재요인에 대한 관찰변수의 모수 추정치를 측정하고 이 모수 추정치의 표준화된 검정통계량(t-value)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나타나면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검증결과 <표 12>와 같이 모든 항목의 모수 추정치의 t값이 2보다 큰 값이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추정된 요인 적재치를 사용하여 계산한 개념신뢰도²⁾ 역시 .690 ~ .907로 나타났으며, 또한 평균분산 추출값³⁾의 경우도 .527 ~ .766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기준(개념신뢰도 .60이상, 평균분산 추출 값 .50이상)을 만족시키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Fornell and Larcker

-
- 1) 구성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frac{(\text{표준화된 요인적재치의 합})^2}{(\text{표준화된 요인적재치의 합})^2 + \text{측정오차 합}}$$
- 2) 분산추출값
(extracted variance)=
$$\frac{\text{표준화된 요인적재치 자승합}}{\text{표준화된 요인적재치의 자승합} + \text{측정오차 합}}$$

1983). 이러한 결과로 각 측정항목들은 해당 연구 단위들에 대해 대표성을 갖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 단위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개념	표준 부하량	측정 오차	t-value	개념 신뢰도
내면화	.82	.34	17.87***	.811
	.80	.35	17.52***	
	.68	.54	13.97***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73	.47	13.43***	.690
	.67	.55	12.45***	
의무적목표지향적 태도	.82	.33	17.87***	.843
	.84	.29	18.62***	
	.74	.45	15.76***	
자발적목표지향적 태도	.81	.34	18.60***	.906
	.94	.11	23.37***	
	.86	.26	20.24***	
외모관리행동	.62	.62	12.02***	.782
	.84	.30	17.20***	
	.75	.44	15.05***	

연구개념	비표준부하량	표준부하량	측정오차	t-value	개념신뢰도
외모 만족도	.76	.76	.42	16.18***	.822
	.53	.53	.72	10.34***	
	.75	.75	.44	15.74***	
	.87	.87	.25	19.13***	
외모관리 지속의사	.85	.85	.27	19.75***	.888
	.78	.78	.39	17.46***	
	.92	.92	.16	22.07***	
심층확대 관리의사	.93	.93	.13	23.23***	.895
	.80	.80	.36	18.25***	
	.91	.91	.17	22.31***	
삶의 질	.87	.87	.25	20.20***	.907
	.90	.90	.18	21.56***	
	.77	.77	.41	16.99***	

<표 13>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

구분	χ^2	df	GFI	AGFI	NFI	NNFI	CFI	RMSEA
기준값	-	-	$\geq .88$	$\geq .86$	$\geq .90$	$\geq .90$	$\geq .90$	$< .07$
연구모형	680.13	239 ($p=.000$)	.92	.89	.94	.95	.96	.079

나. 조절변수인 공적자기의식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조절변수인 공적자기의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5>과 같이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37.91$, $df=2(p=.000)$, $GFI=.96$, $AGFI=.89$, $NFI=.97$, $NNFI=.90$, $CFI=.97$, $RMSEA=.21$ 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표 14>와 같이 모수 추정치의 t값이 2보다 크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 대한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조방정식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추정된 요인 적재치를 사용하여 계산한 개념신뢰도 역시 .905로 나타났고, 또한 평균분산 추출값의 경우도 .707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기준(개념신뢰도 .6이상, 평균분산 추출 값 .5이상)을 만족시키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Fornell and Larcker 1983).

<표 14> 공적자기의식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표준 부하 량	측정 오차	t-value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값
-나는 나에 대해 다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감한 정도	.71	.50	15.47***	.905	.707
-남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신경을 쓴 정도	.81	.34	18.6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쓴 정도	.96	.08	24.33***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사람을 의식하는 편인 정도	.86	.25	20.60***		

<< 표

<표 15> 공적자기의식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

구분	χ^2	df	GFI	AGFI	NFI	NNFI	CFI	RMSEA
기준값	-	-	$\geq .88$	$\geq .86$	$\geq .90$	$\geq .90$	$\geq .90$	$< .07$
연구모형	37.91	2 ($p=.000$)	.96	.89	.97	.90	.97	.21

3. 판별타당도 검증

판별타당도 검증은 각각의 잠재변수 구조가 서로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판별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 각각의 구성개념 간에는 측정결과에 있어서 상응하는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 상관관계 행렬(Φ matrix)을 통해 95% 신뢰구간 [상관관계 $\pm(2 \times \text{표준오차})$] 으로 계산하여 그 값이 “1”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Anderson and Gerbing, 1988; Fornell and Larcker, 1981). 둘째, 좀 더 엄격한 검증방법으로서 평균분산 추출값(AVE)이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자승치(squared correlation)보다 커야 한다(Fornell, and Lacker, 1981). 셋째, Bagozzi et al.(1988) 가 제안한 검증방법으로 두 개의 잠재되어 있는 변수 척도를 서로 짝을 지어 한 번에 한 쌍씩 수행하는 방법이다. 먼저 두 잠재변수들 간에 상관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을 수행시켜 그 χ^2 값을 구한 뒤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에 고정치를 주지 않은 비제약모델(unconstrained base model)을 수행시켜 나온 χ^2 값과 비교한다. 이때 두 잠재변수간의 χ^2 값 사이에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나면 두 척도의 판별성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검증방법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첫 번째 검증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환경의 내면화와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 .63 ~ .91로 “1”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변수 간에는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변수를 검증한 결과 <표 16>과 같이 모든 변수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좀 더 엄격한 두 번째 검증방법인 평균분산 추출값(AVE)이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자승치(squared correlation)보다 커야 한다는 Fornell and Robinson(1983)의 검증을 통해 검증한 결과 <표 1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변수에서 상관자승치보다 평균 분산추출값이 더 크게 상회하여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단위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6>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행렬(Φ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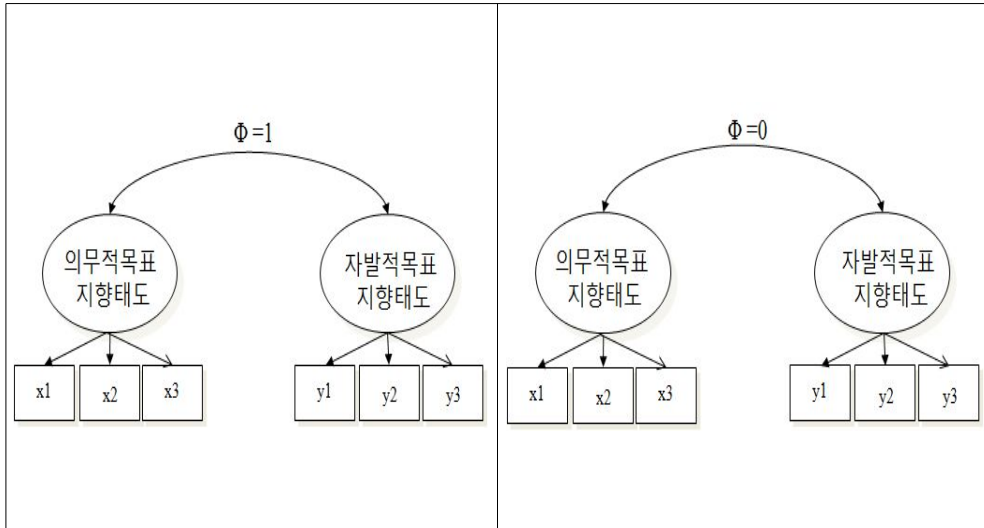
구분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의무적 목표 지향적 태도	자발적 목표 지향적 태도	외모 관리 행동	외모 만족도	외모 관리 지속의사	심층 관리 확대 의사	삶의 질
내면화	.591	.59	.28	.00	.15	.00	.30	.38	.15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77*** (.07)	.527	.29	.01	.19	.00	.18	.29	.20
의무적 목표 지향적 태도	.53*** (.05)	.54*** (.06)	.643	.00	.04	.00	.14	.30	.20
자발적 목표 지향적 태도	.05 (.06)	.08 (.07)	-.01 (.06)	.762	.11	.08	.01	.00	.11
외모 관리 행동	.39** (.06)	.44** (.04)	.21* (.06)	.34** (.05)	.549	.01	.04	.04	.20
외모 만족도	-.07 (.06)	-.01 (.07)	.04 (.06)	.29** (.05)	.09 (.06)	.543	.00	.00	.04
외모 관리 지속 의사	.55*** (.04)	.43*** (.06)	.37** (.05)	-.12* (.06)	.19* (.06)	-.04 (.06)	.726	.28	.08
심층 관리 확대 의사	.62*** (.04)	.54*** (.05)	.55*** (.04)	.01 (.06)	.32*** (.05)	.07 (.06)	.53*** (.04)	.740	.21
삶의 질	.39** (.05)	.45** (.06)	.45*** (.05)	.33** (.05)	.45*** (.05)	.19* (.05)	.29** (.05)	.46*** (.05)	.766

주: 1.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값임
 대각선 아래쪽은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수이며,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대각선 위쪽은 구성개념 간 상관자승치(squared correlation)임
 2.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인 각 구성개념간의 강압모델과 비강압모델을 비교하여 χ^2 값의 차이검증은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 외모관리행동, 외모만족도, 외모관리 지속의사, 심층확대 관리의사, 삶의 질의 9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두 개씩 짝을 짓는 경우 총 36쌍의 모델이 나오며 각각의 경우를 강압모델($\Phi=1$)과 비강압모델($\Phi=0$)로 나누어 2번씩 수행하여 총 72번의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4>과 같이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와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 간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한다. 예를 들면 위에 있는 모형이 상관값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이며, 아래에 있는 모형이 비 제약모델이다. 따라서 두 모형 분석결과로 도출된 χ^2 값이 차이가 클수록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같이 72번

의 수행결과 <표 17>과 같이 모든 변수간 비 제약모델과 제약모델간 $\Delta x^2_{(1)}$ 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4>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한 강압모형과 비강압모형의 검증



<표 17> 비강압모델과 강압모델간 비교를 통한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구성개념 간	비제약모델		제약모델		$\Delta x^2_{(1)}$
	df	x^2	df	x^2	
내면화-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4	10.96	5	37.22	26.26
내면화-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	8	18.12	9	294.41	276.29
내면화-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	8	13.52	9	392.94	379.42
내면화-외모관리행동	8	11.66	9	292.30	280.64

구성개념 간	비제약모델		제약모델		$\Delta\chi^2_{(1)}$
	df	χ^2	df	χ^2	
내면화-외모만족도	13	28.41	14	528.01	499.6
내면화-외모관리 지속의사	8	17.27	9	302.38	285.11
내면화-심층관리 확대의사	8	13.64	9	256.18	242.54
내면화-삶의 질	8	19.96	9	354.98	335.02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	4	9.17	5	70.33	61.16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	4	10.87	5	100.27	89.4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외모관리행동	4	3.30	5	74.02	70.72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외모만족도	8	18.33	9	103.27	84.94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외모관리 지속의사	4	6.23	5	83.00	76.77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심층관리 확대의사	4	5.69	5	63.55	57.86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삶의 질	4	5.74	5	76.12	70.38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	8	12.07	9	472.92	460.85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외모관리행동	8	18.13	9	333.47	315.34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외모만족도	13	20.15	14	485.44	465.69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 -외모관리 지속의사	8	18.33	9	453.44	435.11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 -심층관리 확대의사	8	20.17	9	367.44	347.27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삶의 질	8	1.84	9	398.70	396.86

구성개념 간	비제약모델		제약모델		$\Delta\chi^2_{(1)}$
	df	χ^2	df	χ^2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외모관리행동	8	13.92	9	306.76	292.84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외모만족도	8	41.59	9	603.05	561.46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외모관리 지속의사	8	21.79	9	592.90	571.11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심층관리 확대의사	8	16.94	9	684.66	667.72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삶의 질	8	44.60	9	568.31	523.71
외모관리행동-외모만족도	13	32.22	14	348.33	316.11
외모관리행동-외모관리 지속의사	8	14.36	9	333.76	319.40
외모관리행동-심층관리 확대의사	8	6.65	9	304.10	297.45
외모관리행동-삶의 질	8	16.25	9	283.25	267.00
외모만족도-외모관리 지속의사	13	21.22	14	599.23	578.01
외모만족도-심층관리 확대의사	13	22.17	14	689.76	667.59
외모만족도-삶의 질	13	27.09	14	594.48	567.39
외모관리 지속의사-심층관리 확대의사	8	17.16	9	488.48	471.32
외모관리 지속의사-삶의 질	8	6.79	9	561.08	554.29
심층관리 확대의사-삶의 질	8	14.45	9	506.08	491.63

제3절 가설의 검증

1. 구조모형의 검증

<표 18> 전체 경로모형 검증

가설	경로		표준 부하량	표준 오차	t값	결과
H1-1	내면화	→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	-.30	-.12	-2.49*	지지
H1-2	내면화	→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	.01	.13	.08	기각
H1-3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	-.31	.13	-2.39*	지지
H1-4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	.08	.13	.58	기각
H2-1	내면화	→ 외모관리행동	.21	.12	1.73 ⁺	지지
H2-2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 외모관리행동	.21	.14	2.42*	지지
H3-1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	→ 외모관리행동	-.04	.07	-.50	기각
H3-2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	→ 외모관리행동	.24	.06	5.38***	지지
H4-1	외모관리행동	→ 외모만족도	.11	.06	1.99*	지지
H4-2	외모관리행동	→ 외모관리 지속의사	.31	.06	4.78***	지지
H4-3	외모관리행동	→ 심층관리 확대의사	.43	.07	6.65***	지지
H4-4	외모만족도	→ 외모관리 지속의사	.17	.06	2.98**	지지
H4-5	외모만족도	→ 심층관리 확대의사	.01	.05	.15	기각
H5-1	외모만족도	→ 삶의 질	.13	.05	2.58**	지지
H5-2	외모관리 지속의사	→ 삶의 질	.15	.05	2.02*	지지
H5-3	심층관리 확대의사	→ 삶의 질	.25	.06	4.53***	지지
적합도	$\chi^2=871.76$, $df=306(p=.000)$, $GFI=.89$, $AGFI=.86$, $NFI=.92$, $NNFI=.94$, $CFI=.95$, $RMSEA=.07$					

+ p<.10, * p<.05, *** p<.001

연구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가설에서 제시했던 경로들을 모두 설정하여 전체 모델(full model)을 분석한 결과 <표 18>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chi^2=871.76(p<.000)$, $df=306$, $GFI=.89$, $AGFI=.86$, $NFI=.92$, $NNFI=.94$, $CFI=.95$, $RMSEA=.07$ 로 GFI 및 AGFI값이 기준 값을 상회하므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2. 연구가설의 검증

가. 내면화 및 사회적인식이 목표지향적태도에 미치는 영향(H1)

외모에 대한 내면화가 목표지향적태도인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beta=-.30$, $t=-2.49$, $p<.05$) 부정(-)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1-1은 지지되었으나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영향($\beta=.01$, $t=.08$, $p>.05$)을 미치지 않으므로 나타나 가설1-2는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beta=-.31$, $t=-2.39$, $p<.05$)에는 부정(-)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3은 지지되었으나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beta=.08$, $t=.58$, $p>.05$)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1-4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 이미지와 사회 전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인해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이상적 이미지 또는 타인과 비교하여 좀 더 이상적으로 되고자 할수록 목표추구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지향하고자하는 태도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화는 의무적으로 느끼는 경향을 늘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인식이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에도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목표지향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의무를 느끼기보다는 자신과의 인식과 태도에 더 중요성이 주어져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된다.

나. 내면화 및 사회적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H2)

내면화 및 사회적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내면화($\beta = .21, t=1.73, p<.10$) 및 사회적인식($\beta = .24, t=2.42, p<.05$) 모두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1과 2-2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전반적인 현상이 개개인의 외모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사회활동에서도 외모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으로 인한 영향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개인의 지각차원에서 외모를 사회적 중요한 판단기준을 삼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직접적인 지각과 함께 타인과 비교를 통한 내면화를 거쳐서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외모관리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 두 요인은 중요한 설명 변수가 됨을 알 수가 있다.

다. 목표지향적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H3)

목표지향적태도인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beta = -.04, t=-.50, p>.05$) 가설3-1은 지지되지 않았으나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beta = .04, t=5.38, p<.001$)가 외모관리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2는 지지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개개인의 외모에 대해 누군가의 압력 및 강요에 의해 목적을 정하고 이를 따르려는 태도는 외모관리에 있어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려는 태도는 직접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을 더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적(-)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어 오히려 외모관리행동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는 외모관리행동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모는 자신의 적극적인 태도형성은 외모관리 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써 관련 건강관리업체 및 외모관리업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방안이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라.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도가 향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H4)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도가 향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외모관리행동($\beta = .11, t = 1.99, p < .05$)이 외모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1은 지지되었으며, 또한 향후 행동의도인 외모관리지속의사($\beta = .31, t = 4.78, p < .001$), 심층관리확대의사($\beta = .43, t = 6.65, p < .001$)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2, 가설4-3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가 외모관리지속의사($\beta = .17, t = 2.98, p < .01$)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층관리확대의사($\beta = .01, t = .15, p > .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5는 지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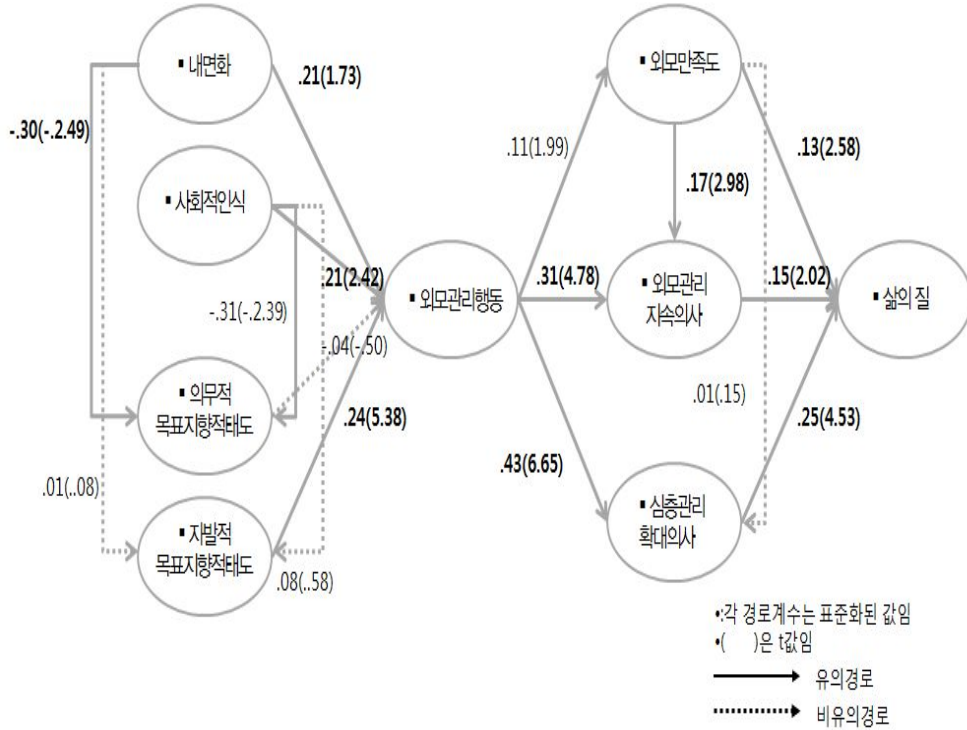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선호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의도와 더욱 더 외모관리행동을 심층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이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현재의 외모만족은 외모에 대한 관리행동을 이끌 수는 있지만 심층적으로 성형이나 시술 등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소비자나 개인들이 다이어트 중독 또는 성형중독에 빠진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본 연구 조사결과 이들은 외모관리행동을 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자신이 느꼈을 때 관리행동 자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보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 단계의 관리행동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성형이나 관리행동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 외모만족도 및 향후 행동의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H5)

외모만족도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beta = .13, t = 2.58,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1은 지지되었다, 또한 향후 외모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beta = .15, t = 2.02, p < .05$) 및 심층적인 확대관리의사($\beta = .25, t = 4.53, p < .001$)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2와 가설5-3 모두 지지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외모가 자신의 생활전반에 삶의 질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개인들이 외모관리행동을 하면 외모만족도도 오르고 이를 통해 외모관리행동은 더욱 지속하려는 의사를 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심리적 만족도와 행동 자체가 개인의 삶의 질

항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전한 외모관리행동이 일상화되고 저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5> 연구모형 분석결과



바. 공적자기의식의 조절적 역할

(1) 공적자기의식 고/저집단 분류의 조작적 점검

공적자기의식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표 19>와 같이 두 그룹이 도출되었다. (고집단 M=3.760, 저집단 M=2.659, $p < .05$)

<표 19> 공적자기의식 고/저집단 분류의 조작적 점검

공적자기의식	N	평균	표준편차	t값
고집단	192	3.760	.404	23.712***
저집단	177	2.659	.487	

*** p<.001

(2) 공적자기의식(고/저)의 조절적 역할 검증

공적자기의식의 조절적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20>과 같이 나타났다.

<표 20> 공적자기의식의 조절적 역할 검증

구분	경로	$\chi^2(df)$	$\Delta\chi^2$	Sig.
	Free	1377.54(598)		
자유모델	외모에 대한 내면화→외모관리행동	1378.66(599)	.12	N.S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외모관리행동	1402.01(599)	24.47	p<.05
제약모델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 태도→외모관리행동	1394.20(599)	16.66	p<.05
	외모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 태도→외모관리행동	1384.78(599)	7.24	p<.05

먼저 전체 모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df=598$ 과 $\chi^2=1377.54$ 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외모에 대한 내면화→외모관리행동,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외모관리행동,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 태도→외모관리행동, 외모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 태도→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각 경로를 공적자기의식 고집단과 저집단에 대한 제약모델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20>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외모관리행동,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 태도→외모관리행동, 외모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 태도→외모관리행동의 경로에서 자유모델과 비교하여 $\Delta\chi^2$ 값($\Delta df=1$)이 세 경로에서 3.84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 공적자기의식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외모에 대한 내면화→외모관리행동 경로에서는 공적자기의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6-1은 지지되지 않았으나 가설6-2와 가설7-1, 가설7-2는 지지되었다.

<표 21> 연구가설 검증결과의 종합

구 분	가 설	채택여부
H1-1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1-2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3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은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1-4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은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1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외모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2-2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은 외모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3-1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은 외모관리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2	외모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은 외모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4-1	외모관리행동은 외모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4-2	외모관리행동은 외모관리지속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4-3	외모관리행동은 외모관리 심층확대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4-4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리지속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4-5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리 심층확대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5-1	외모만족도는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5-2	향후 외모관리 지속의사는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5-3	향후 외모관리 심층확대의사는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6-1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고/저)은 내면화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H6-2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고/저)은 사회적인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지지
H7-1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고/저)은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지지
H7-2	외모에 대한 공적자기의식(고/저)은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지지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가 외모에 대한 목표지향적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하여 외모관리행동이 외모만족도 및 향후 행동의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및 목표지향적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자기의식(고/저집단)의 조절적 역할을 밝혀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내면화가 목표지향적태도인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에 대한 내면화란 외모에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외적인 가치와 태도에 집중하게 된다.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외모에 대한 수동적인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타인과 비교를 통하여 내면화 할수록 의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노력은 적게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적인 내면화는 의무적이며 강요적인 것에는 덜 따르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는 내면화는 능동적인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내면화와 동일한 결과로 내면화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 이미지와 사회 전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인해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내면화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인식 또한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전반적인 현상이 개개인의 외모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사회활동에서도 외모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으로 인한 영향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이 단순히 사회 환경적 영향을 받아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먼저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내면화를 거쳐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목표지향적태도인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자신의 외모관리에 대해 타인 및 사회적 압력에 의해 수행하게 되는 외모관리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의무적 목표지향적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정적(-)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어 오히려 외모관리행동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이 스스로 외모관리에 대해 인지하고 그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 목표지향적태도는 능동적으로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태도->행동으로 이어지는 영향관계를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적극적인 태도형성으로 외모관리 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써 관련 건강관리 업체 및 외모관리업체에서는 소비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외모관리행동이 외모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행동의도인 외모관리지속의사, 심층관리확대의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가 외모관리지속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층관리확대의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발달 과정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외모의 긍정적인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이끈다는 이숙영(200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외모만족은 외모에 대한 관리행동을 이끌 수는 있지만 심층적으로 성형이나 시술 등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외모만족도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외모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 및 심층적인 확대관리의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높은 만족은 사회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삶의 질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외모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적절한 외

모관리를 이끌어 외모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개인 삶의 만족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 업체에서는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을 강조하여 바람직한 외모관리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기의식의 조절적 역할을 검증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식 → 외모관리행동, 외모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 태도 → 외모관리행동, 외모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 태도 → 외모관리행동의 경로에서 공적자기의식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외모에 대한 내면화 → 외모관리행동 관계에서는 공적자기의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사회적으로 외모에 대한 중요성과 평가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내면화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적자기의식의 고/저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들이 외모관리행동을 하면 외모만족도는 오르고 이를 통해서 외모관리행동을 더하게 되며 앞으로도 더욱 지속하고 더 높은 단계의 관리행동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높아진 만족도와 관리행동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장래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이에 대한 향후 연구의 방향이 도출된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외모관리행동을 밝히는 연구로 공적자기의식의 조절적 역할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나 개개인의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직업적 특성 및 현재의 외모관리행동 수준 및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폭넓은 학문적 기여가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내면화는 단일차원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내면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결과에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태도 변화를 이끄는 순응과 동일시를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외모관리 행동을 폭 넓게 이해하는데 기여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최근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모관리행동과 향후 행동의도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부 외모만족도가 심층관리확대의사에서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한 다양한 선행요인을 도입하여 외모관리행동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모관리의 심층관리 및 확대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나 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들 심층관리행동이 기존 관리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감의 상승 등을 조사함으로써 삶의 질 의식과의 연계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외모관리행동의 조절적 변수로 공적자기의식만을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객체적 자기의식 또는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변수를 도입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비자의 외모관리행동은 사회적 이슈 또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자기의식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자신의 인정 및 수용 등이 조절변수를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연구하여 실제 관련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크게 보자면 개인은 소비자 주체로 인식하여 이들의 사회인식적 내면화와 태도를

기준으로 세분시장화 할 수 있으며 세 그룹별 외모관리행동들의 방식과 수준을 조사하여 산업체 및 마케팅 관리자로서 전략 및 홍보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과도한 외모관리행동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및 개인들은 외모관리행도를 통해 만족도 느끼며 관리행동도 점차 확대하거나 지속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산업계에서는 소비자 및 시민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환경 등을 제공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375부의 자료를 통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 외모관리행동은 연령대별로 다른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별 연구를 실험연구 또는 양방향연구를 통해 일반성을 제고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상민. (2002). 중학생의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소연. (2012). 매슬로우 욕구에 따른 네일관리행동,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고애란, 양진. (196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81.
- 고애란, 이수경. (2004). 여대생의 신체 발달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11), 189-203.
- 김경아. (2003). 아동과 청소년의 외모 및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미리. (2012).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스타마케팅 관심도 및 헤어행동 간의 관련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선경, 홍성희. (2013). 중년 여성의 외모관심 정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미용학회지, 19(6), 1186-1196.
-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5), 99-108.
- 김수현. (2013).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여성의 미용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2009). 신체가치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3), 581-600.
- 김유성. (2011). 자기애성향별 신체매력성 지각이 미용추구혜택 및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윤, 이종남. (2009). 사회문화적압력과 성인 남성의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0(1), 153-167
- 김은경. (2005). 아동의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 김인숙, 김은혜. (2014). 소비가치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차별적, 물리적, 실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6(6), 897-907.
- 김태미. (2011).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뷰티 관심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형은. (2015). 목표지향성과 창의적 조직문화가 미용 산업 조직원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김홍빈, 권봉현. (2002). 호텔의 기업이미지가 고객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과연구, 16(3), 65-80.
- 노지영, 고애란, 정미실. (2005). 직장남성의 이미지 컨설팅을 위한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패션성향을 중심으로-, 29(1), 58-67.
- 노선옥. (2011).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 연구: 20, 30,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3), 571-579.
- 박광희, 김인숙. (2013).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외모관리행동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4), 554-564.
-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일반 22(2), 35-56.
- 박선희. (2011).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박혜원. (2013).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방기정. (2012). 디지털 변화에 따른 뷰티제품의 휴대가능성 연구. 패션비즈니스저널, 16(1), 83-102.
- 배정숙, 류현혜. (2004). 성인 여성의 메이크업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과 사용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332-343.
- 백혜영, 이선목. (2003). 서원대생의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21(-), 217-231.
- 설현진. (2010).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

-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 신미영, (1997)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심경옥, (2006),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안나영.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양유나. (2016). 무용 예술 전공자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태도 및 관리행동이 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오별. (2012). 중·고등학생의 뷰티관심도와 정보탐색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유혜경, 고선영. (2015). 한국 비만 남성들의 외모관련 삶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39(6), 812-825.
-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이미정, 이성내. (2012). 직장 여성의 미용관심도와 메이크업 이미지 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미용학회지, 10(3), 655-660.
- 이경숙. (2007).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추구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이명희, 레슬리 데이브스 번즈. (1993).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자기의식과 의복구매기준. 의류 및 섬유연구 저널, 11(4), 32-40.
- 이미숙.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58(6), 96-109.
- 이민정, 정성지, 안미선. (201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렉스, 얼굴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9(3), 323-336.
- 이수경, 조현성. (2014).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8(4), 528-539.
- 이숙영. (2005). 중년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피부 관리실 방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22(4), 913-926.

- 이승희, 이시원. (2009).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의식, 신체이미지,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 13(5), 45-54.
- 이승희, 박길순. (2011).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복식문화연구, 19(5), 187-199.
- 이시원. (2003). 공적 · 사적 자기의식에 따른 바디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실. (2011). 연령 및 피부타입에 따른 피부관리태도와 피부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3), 1-11.
- 이주영. (2012). 여성의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순, 한경희. (2008). 여대생의 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2(2), 153-164.
- 장혜선. (2014).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전현진, 정명순.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20-30대 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6(2), 590-601.
- 정미실. (2012). 성형태도, 신체편향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섬유학회지, 36(10), 1125-1136.
- 정혜윤. (2010). 외모만족과 사회적 지지가 연기전공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전용배, 구강본. (2009). 야구동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참여동기, 팀몰입도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4(3), 27-40.
- 전정혜, 유태순. (2011). 공적자기의식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객체화된 신체 의식이 이미지관리 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 한국의류학회지, 35(11), 333-345.
- 차보경, (2013). 여대생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한국간호원학회, 20(4), 400-409.
- 천혜숙, (2016). 헤어중사자들이 성취목표지향성과 감성기능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최수경. (2007).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최수경, 추미선. (2014).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학국의류학회지*, 38(5), 654-664.
- 최자영, 이수원, 장은영. (2013). 공적자기의식과 나르시시즘이 페이스북 브랜드 팬 페이지의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컨셉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마케팅학회*, 28(2), pp.65-86.
- 최영미. (2013).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근접하위목표, 과제도구성지각, 및 자기조절전략과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네일 및 메이크업관련 미용 산업 선진화방안연구.
- 한은숙. (2011). 직장인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몰입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홍금희.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학국의류학회*, 30(2), 348-357
- (2010), 공적 자기의식과 사회문화적 압력이 이상적 외모태도와 신체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학국의류학회지*, 34(10), 1731-1741.
- 홍희숙, 류성민. (2009). 웰빙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의 탈 물질주의 가치 성향 및 의류 상품 추구 혜택, 소비문화 연구, 12(2), 39-66.
-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적 매력 지각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황윤정, 유태순.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얼굴 및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식학회*, 58(6), 85-95.

<국외 문헌>

- Alfonso, V. C., Allison, D. B., Rader, D. E., and Gorman, B. S. (1996). The Extende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 275-301.
- Ames, C. (1992). Achievement goals and the classroom motivational climate. In D. Schunk and J. Meece (Eds.), *Student perceptions in the classroom*, 327-348.
- Ames, C., and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3), 260.

- Anderson, J. C., and D.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loch and Richins. (1992). You Look “Mahvelous” :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ical and Marketing*, 9(1), 3-15.
- Bloem, S., Carpenter J. E., and Hofmeyr, J. H. (2003). Radiation Biology and Inherited Sterility in False Codling Moth(Lepidoptera; Tortricidae), *Journal of Economic and Entomolgy*, 9(6), 1724-1731.
- Bloemer, J., Odekerken-Sschröder, G., Kestens, L. (2003). The Impact of Need for Social Affiliation and Consumer Relationship Proneness on Behavioural Intentions: An Empirical Study in a Hairdresser's Context.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10(4), 231-240.
- Burckhardt, C. S. (1985). The Impact of Arthritis on Quality of Life. *Nursing Research*, 34(1), 325-211.
- Cash, T. F., and Henry, P. E. (1995). Women's Body Images: Th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in The U. S. A.. *Sex Roles*, 33(1), 19-28
- Chen, L. J., Fox, K. R., Haase, A. M., and Ku, P. W. (2010). Correlates of Body Dissatisfaction Among Taiwanese Adolescents.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19(2), 172-179.
- Cusumano, D. L., and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9-10), 701-72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
- Dweck, C.S., and Elliot, E.S. (1983). Achievement Motivation. In P. H. Mussen(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la Development* (4th ed, pp. 643-691). New York: Wiley.
- Dweck, C.S., (1986). Motivational Pre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 Dweck, C. S., and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273.

- Fenigstein, Allan, M. F., Scheier, and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ornell, C.,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1), 39-50.
- Fredrickson, B. L., Roberts, T. A., Noll, S. M., Quinn, D. M., and Twenge, J. M. (1998). That Swimsuit Becomes You: Sex Differences in Self-Objectification, Restrained Eating, and Ma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69-284.
- Garner, R., Feeny, D., Thompson, A., Bernier, J., McFarland, B., Huguet, N., Kaplan, M., Orpana, H., Ross, N., and Blanchard, C. (2012). Bodyweight, Gender, and Quality of Life: A Population-Based Longitudinal Study. *Quality of Life Research*, 21(5), 813-825.
- Graham, S., and Golan, S. (1991). Motivational Influences on Cognition: Task Involvement, Ego Involvement, and Depth of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2), 187-194.
- Graham J. A., and Jouhar, A. J. (1981).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5), 199-210.
- Harackiewicz, J. M, and Elliot, A. J. (1993).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904-915.
- Hassion, R. and Trope, Y. (2000). Facing Faces :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837-852.
- Heinberg, L. J., Thompson, J. K., and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SATQ).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A Guide for The Consumer.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37-42.

- Kenndy, C. (1989). Community integration and well being: Toward the goal of community care, *Journal of Social Issues*, 7(4), 132-343
- Lennon, S. J., and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 94-117.
- Liu. B. C. (1973). Quality of Life Indicators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187-208.
- Lorenzen I. A., Grieve F. G. and Thomas A. (2004). Exposure to Muscular Male Models Decreases Men' s Body Satisfaction. *Sex Roles*, 51, 743-748.
- Mayers, T. A., and Crowther, J. H. (2009). Social Comparison as a Predictor of Body Dis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4), 683-698.
- Mclean, F. P.,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Clothing Satisfaction. The Utah State University.
- McKinley, N. M., and Hyde, J.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illekk, F. G., Davis, L. L., and Rowold, K. L. (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63-368.
- Morrison, T. G., Kalinn, R., and Morrison, M., A. (2004). Body-image evaluation and body-image investment among adolescents: A test of sociocultural and social comparison theories: *Adolescence*, 39(155), 571-592.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Auth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 Reed, L. R. (1998). Image and Attitude: The Impact of Media Images on the Self-Esteem, Body Image and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hode Island, Kingston.
- Rudd, N. A., and Lennon, S. 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52-62.

- Schlenker, B. R., and Weigold, M. F. (1990). Self-Consciousness and Self-Presentation: Being Autonomous Versus Appearing Autonomo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4), 820-828.
- Schutz, H. K., Paxton, S. J., and Wertheim, E. H. (2002). Investigation of Body Comparison Amo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9), 1906-1937.
- Secord, P. F.,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Cathexis: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 Psychol*, 17(5), 434-7.
- Skaalvik, E. M. (1997). Self-Enhancing and Self-Defeating Ego Orientation: Relation with Task and Avoidance Orientation, Achievement, Self-Perception, and Anxie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1), 71-81.
- Smith, T. E, Hull, J. W., and Clarkin, J. F. (1999). Dimensions of Social Adjustment in Schizophrenia: A Factor Analysi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187(1), 55-7.
- Stice, E., Ziemba, C., Margolis, J., and Flick, P. (1996). The Dual Pathway Model Differentiates Bulmics, Subclinical Bulimics, and Controls: Testing the Continuity Hypothesis. *Behavior Therapy*, 27(4), 531-549.
- Stormer, S. M., and Thompson, J. K. (1996). Explanations of Body Image Disturbance: A Test of Maturational Status, Negative Verbal Commentary, Social Comparison, and Sociocultural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2), 193-202.
- Thompson, J. K., and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A Journal of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Thompson, J. K., and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81-183.
- Thompson, B. J. (2004). A Complex of Armadillo, Legless, and Pygopus Coactivates dTCF to Activate Wingless Target Genes. *Current Biology*. 14(6): 458-466.
- Thomton, B., and Maurice, J. (1997). Physique Contrast Effect: Adverse Impact of

- Idealized Body Images For Women. *Sex Roles*, 37(5-6), 433-440.
- Turner, R. G., Gilliland, L., and Klein, H. M. (1981). Self-Consciousness, Evalu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ttra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2), 182-190.
- Workman, J. E., and Johnson, K. K. (1991). The role of Cosmetics in Impression Form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63-67.
- Zeithaml, V. A., Berry, L. L., and Parasuraman, A.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 31-46.

<단행본>

- 김주미. (2016). 외모는 자존감이다. 다산.
- 류지원. (2000). 뷰티 코디네이션 = Beauty coordination. 서울: 고문사, 2000
- 송미영. (2000). NailArt. 현문사.
- 진기남, 엄승연. (1998). 장애인 취업과 삶의 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하용득. (1989).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 Ames, C. (1992). Achievement goals and the classroom motivational climate. In D. Schunk & J. Meece (Eds.), Student perceptions in the classroom, and exercise, Champaign, Ames, C. (1992). 「Achievement goals and the classroom motivational climate. In D. Schunk & J. Meece (Eds.), Student perceptions in the classroom, and exercise, Champaign, IL: Human Kinetics Books.
- Ash, M. K. (2003). 메리 케이의 아름다운 성공신화: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정미홍 역, 서울: 나무와 숲.
- Buss, A.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W. H. Freeman.
- Cash, T. F. (1990).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Aesthetics, Attributes, and Images. In T. F. Cash & T. Pruzinsky(Ed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pp. 51-79). New York: Guilford Press.
- Corbin and Lindsey. (1994). Concepts Physical Fitness with Laboratories, 8th ed.

WBC Brown and Benchmark Publishers.

Cruickshank, W. M. (1971).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Demo. (1987).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Goal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Freud, S. (1931). Libidinal Types. London: Hogarth Press

Nunnally, J.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ed.). New York: McGraw-Hill.

Seybolt, D. C. (2000). Residential Factors Predicting community Integr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Serious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University Micro films International.

<웹사이트>

삶의 질(2009). 삶의 질. 특수 교육학 용어사전. 국립특수교육원.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chosun.com. 사람인. “취준생, 어학보다 외모에 3배 더 투자… 1년간 528만원 쓴다.” 2016.6.24.

chosun.com. “구직자 73.6% '면접 위해 외모 관리', 가장 많이 하는 외모 관리는?” 2016.10.26

<http://blog.enter6.co.kr/1562>

<https://www.google.co.kr/search?>

[https://www.google.co.kr/search?q,](https://www.google.co.kr/search?q)

<http://m.blog.daum.net/oprgniio8/19>

<http://iacea.com.ar/gnu/bbs/a-news-content.html?board>

<http://sportvitamin.tistory.com/79>

<http://nbsports.tistory.com/405>

<http://archncurl.com/?p=1359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http://thercokr.tistory.com/entry>

<http://tjsal1163.tistory.com/224>

<http://medibelldj.tistory.com/entry>

<https://www.google.co.kr/search?q>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

<http://m.blog.daum.net/koreanhealth/164>

http://www.sy-ps.com/bbs/content.php?co_id=clinic61

<부록-설문지>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소비자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로서 외모관리 행동 연구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응답은 오직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로 일괄 처리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귀하께서 답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느끼신 그대로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사과정 김해선

지도교수 한선주

▣ 다음은 귀하의 외모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아래질문에 “v”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1주일에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매일 ② 주 5일 ③ 주 3일 ④ 주 1일 ⑤ 하지 않음

2. 귀하께서는 운동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섭취절제(굶기)
 ② 유산소 운동(달리기, 조깅, 자전거 타기, 러닝머신, 수영, 에어로빅)
 ③ 무산소 운동(팔굽혀 펴기, 아령, 웨이트 트레이닝, 윗몸일으키기, 역도)
 ④ 다이어트 프로그램(병원의 비만클리닉, 헬스클럽, 단식원, 팀다이어트)
 ⑤ 유명한 다이어트 동영상 따라하기 ⑥ 다이어트 의약품 이용
 ⑦ 기능성 식품/다이어트 보조품 (저 칼로리, 무가당, 저 칼로리, 디톡스) ⑧ 기타 ()

3. 귀하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4. 귀하께서는 외모관리를 주로 어느 곳에서 관리하십니까?

- ① 네일샵 ② 미용샵 ③ 피부샵 ④ 집에서 ⑤ 기타()

4-1. (4번 질문에서) 귀하께서는 선택하신 샵에 월 평균 방문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월 3~4회 ④ 월 5~6회
 ⑤ 월 7회 이상 ⑥ 기타()

4-2. (4번 질문에서) 귀하께서는 자주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손톱/헤어/피부등 건강을 위해 ② 나의 만족을 위해 ③ 유행
 ④ 친구들이 하니까
 ⑤ 남들에게 나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⑥ 기타()

5. 귀하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쓰는 비용은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 ① 2~4만원 미만 ② 4~6만원 미만 ③ 6~8만원 미만 ④ 8~10만원 미만
 ⑤ 10만원 이상 ⑥ 기타()

▣ 다음은 귀하의 외모투자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아래질문에 “v”로 응답해주세요.

용어설명:

시술: 의료용 메스나 톱 등을 사용하지 않고 외관 변형시킬 수 있는 (필러, 보톡스, 등) 간단한 성형. **수술:** 의료용 메스나 톱 등을 사용하여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쌍꺼풀수술, 코수술, 가슴수술 등 포함).

6. 귀하께서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시술 ② 수술 ③ 없다

7. 귀하께서는 어떤 시술/수술을 받아보았습니까

- ① 보톡스 ② 필러(코,이마 등) ③ 하안피부 ④ 레이저 시술
 ⑤ 점 ⑥ 턱 수술 ⑦ 광대뼈 수술 ⑧ 양악수술 ⑨ 코수술 ⑩ 쌍
 꺼풀 수술 ⑪ 기타()

8. 귀하께서는 어느 곳에서 시술/수술을 받아보았습니까

- ① 네일샵 ② 피부샵 ③ 성형외과 ④ 미용실 ⑤ 뷰티샵
 ⑥ 기타()

9. 귀하께서는 시술/수술을 받은 결과에 만족합니까

- ① 만족() ② 불만족 () ③ 기타 ()

10. 귀하께서는 시술/수술을 받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기타()

11. 귀하께서는 시술/수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기만족을 위해 ②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③ 주변의식 때문에
 ④ 취업을 위해 ⑤ 사회생활을 위해 ⑥ 기타()

12. 귀하께서는 시술/수술을 받기 전에 실패 가능성이 %라고 생각하였습니까?

-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⑥ 60%
 ⑦ 70% 이상 ⑧ 기타()

13. 귀하께서는 이러한 시술/수술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위험하다 ② 위험하다 ③ 보통이다 ④ 위험하지 않다
 ⑤ 전혀 위험이 없다

14. 귀하께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시술/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아래 질문에 "V"표시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TV나 영화에 나오는 스타들과 내 몸을 비교해 보는 경향이 있다	1-----2-----3-----4-----5	
2. 나는 흔히 여성잡지를 보고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한다	1-----2-----3-----4-----5	
3.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1-----2-----3-----4-----5	
4. 나는 나의 몸매/외모가 TV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1-----2-----3-----4-----5	
5. 나는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연예인의 외모를 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	1-----2-----3-----4-----5	
6. 오늘날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1-----2-----3-----4-----5	
7.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이 날씬할수록 더 보기 좋다고 믿는다	1-----2-----3-----4-----5	
8. 나는 날씬한 모델이 입은 옷이 더 나아 보인다고 믿는다	1-----2-----3-----4-----5	
9.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씬할수록 옷맵시가 난다'라고 생각한다.	1-----2-----3-----4-----5	
10. 오늘날 사회에서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1-----2-----3-----4-----5	

▣ 다음은 외모지향에 대한 아래 질문에 "V"표시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1-----2-----3-----4-----5	
2.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2-----3-----4-----5	
3.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경제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1-----2-----3-----4-----5	
4.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나의 만족에 목표를 두고 있다.	1-----2-----3-----4-----5	

☐ 다음은 외모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나의 몸무게에 대해 만족 한다.	1-----2-----3-----4-----5	
2. 나는 나의 체형(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에 대해 만족 한다.	1-----2-----3-----4-----5	
3. 나는 나의 피부에 대해 만족 한다.	1-----2-----3-----4-----5	
4. 나는 나의 눈 모양에 대해 만족 한다.	1-----2-----3-----4-----5	
5. 나는 나의 얼굴형(모양/크기)에 대해 만족 한다.	1-----2-----3-----4-----5	

☐ 외모관리에 대한 아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체중감소를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1-----2-----3-----4-----5	
2. 나는 체형관리를 위해 운동(ex:골프, 수영, 헬스등)을 한다	1-----2-----3-----4-----5	
3. 나는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을 이용한다.	1-----2-----3-----4-----5	
4. 나는 선크림, 미백, 주름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1-----2-----3-----4-----5	
5. 나는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지방흡입을 이용한다	1-----2-----3-----4-----5	

☐ 외모행동지향에 대한 아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색조화장(아이섀도, 립스틱, 볼터치)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	1-----2-----3-----4-----5	
2. 나는 얼굴 컨투어링(윤곽수정)을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1-----2-----3-----4-----5	
3. 나는 비수술 미용성형(보톡스, 필러)을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1-----2-----3-----4-----5	
4. 나는 저칼로리 식품을 골라 먹기를 계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1-----2-----3-----4-----5	

☐ 외모관리에 관련된 인식에 대한 아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3-----4-----5	
2.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나 자신을 존중한다.	1-----2-----3-----4-----5	
3.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1-----2-----3-----4-----5	
4. 나의 외모관리를 통해 미래는 밝고 긍정적이다.	1-----2-----3-----4-----5	
5. 나는 외모관리를 통해 좋은 장점이나 자질을 많이 갖고 있다.	1-----2-----3-----4-----5	

▣ 외모를 타인 시각에 대한 아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 여러 번 생각한다.	1-----2-----3-----4-----5	
2.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편이다.	1-----2-----3-----4-----5	
3. 나는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민감한 편이다.	1-----2-----3-----4-----5	
4. 나는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하는 편이다.	1-----2-----3-----4-----5	

▣ 확대의사에 관한 아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향후 나는 자신의 외모관리 행동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1-----2-----3-----4-----5	
2. 향후 나는 자신의 외모관리 행동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2-----3-----4-----5	
4. 향후 나는 자신의 외모관리에 따른 어떤 비용도 받아들일 수 있다	1-----2-----3-----4-----5	
5. 향후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어떤 시술도 받을 수 있다.	1-----2-----3-----4-----5	
6. 향후 나는 외모관리에 따른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다.	1-----2-----3-----4-----5	
7. 향후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1-----2-----3-----4-----5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__남자 ②__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세

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_____ (광역시 혹은 도 서울, 경기도, 경상도, 대구, 전라도, 광주 등)

4.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 만원 - 199 만원 ③ 200 만원 - 299 만원
④ 300 만원 - 399 만원 ⑤ 400 만원 - 499 만원 ⑥ 500 만원 이상

5.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학재학 ④ 대졸 ⑤ 대학원 재학 ⑥ 대학원 졸업

6. 귀하의 직업은?

- ① 주부 ② 학생 ③ 자영업 ④ 공무원 ⑤ 교육자
⑥ 일반 사무 및 관리직 ⑦ 기술직 및 기능직 ⑧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